

국어문법 정답해설

V20190905-193
평가원, 교육청, 경찰대, 사관학교 문제모음집

문제·정답해설의 출처·저작권

- 6월 평가원, 9월 평가원, 11월 수능 : 평가원, EBS
- 3월 서울, 4월 경기, 5월 전북, 7월 인천, 8월 전북, 10월 서울, 11월 전북, 11월 대구 등 : 각 교육청
- 7월 사관학교 · 경찰대 : 사관학교, 경찰대

편집정보

- 업로드 한 곳 : <http://cafe.daum.net/dulsai/>
 - 재편집자 : 샤랄랄라라라(문제, 정답해설), 구레나룻(정답해설)
 - V2019.09.05.193
-

A001

201611수능11

정답 ①

출제의도 중심적 의미와 주변적 의미

정답해설 <보기>에서는 본래 공간과 관련된 중심적 의미를 지니고 있던 ‘가깝다’가 추상화되어 주변적 의미도 지니게 되었음을 설명하고 있다. ①의 ‘물은 낮은 곳으로 흐른다.’에서 ‘낮다’는 ‘아래에서 위까지의 높이가 기준이 되는 대상이나 보통 정도에 미치지 못하는 상태에 있다.’라는 의미로 쓰여 공간과 관련된 중심적 의미를 나타내지만, ‘환경에 대한 관심이 낮다.’에서 ‘낮다’는 ‘품위, 능력, 품질 따위가 바라는 기준보다 못하거나 보통 정도에 미치지 못하는 상태에 있다.’라는 의미로 쓰여 중심적 의미가 추상화된 주변적 의미를 나타낸다.

오답피하기

- ② ‘크다’의 중심적 의미는 ‘사람이나 사물의 외형적 길이, 넓이, 높이, 부피 따위가 보통 정도를 넘다.’이다. ‘그는 성공할 가능성이 크다.’에서 ‘크다’는 ‘가능성 따위가 많다.’라는 주변적 의미로 쓰였으며, ‘힘든 만큼 기쁨이 큰 법이다.’에서의 ‘크다’ 역시 ‘일의 규모, 범위, 정도, 힘 따위가 대단하거나 강하다.’라는 주변적 의미로 쓰였다.
- ③ ‘넓다’의 중심적 의미는 ‘면이나 바닥 따위의 면적이 크다.’이다. ‘두 팔을 최대한 넓게 벌렸다.’와 ‘도로 폭이 넓어서 좋다.’에서 ‘넓다’는 모두 ‘너비가 크다.’라는 중심적 의미로 쓰였다.
- ④ ‘좁다’의 중심적 의미는 ‘면이나 바닥 따위의 면적이 작다.’이다. ‘내 좁은 소견을 말씀드렸다.’와 ‘마음이 좁아서 곤란하다.’에서 ‘좁다’는 모두 ‘마음 쓰는 것이 너그럽지 못하다.’라는 주변적 의미로 쓰였다.
- ⑤ ‘작은 힘이라도 보태고 싶다.’에서 ‘작다’는 ‘일의 규모, 범위, 정도, 중요성 따위가 비교 대상이나 보통 수준에 미치지 못하다.’라는 주변적 의미로 쓰였으며, ‘우리 학교는 운동장이 작다.’에서 ‘작다’는 ‘길이, 넓이, 부피 따위가 비교 대상이나 보통보다 덜하다.’라는 중심적 의미로 쓰였다.

A002

201611수능12

정답 ⑤

출제의도 음운 변동 이해, 적용

정답해설 (가)에서는 음절의 종성에 마찰음, 파찰음이 오거나 파열음 중 거센소리나 된소리가 올 경우 모두 파열음의 예사소리로 교체된다는 ‘음절 끝소리 규칙’에 대해 설명하고 있고, (나)에서는 음절의 종성에 자음군이 올 경우 한 자음이 탈락한다는 ‘자음군 단순화’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옳고’의 ‘옳-’은 음절의 종성에 자음군 ‘ㅃ’이 온 경우이므로 (나)의 ‘자음군 단순화’가 적용되어 ‘ㄹ’이 탈락된 [옳고]가 된다. 그리고 [옳고]에서 첫 음절의 종성은 거센소리 ‘ㅍ’이 온 경우이므로 (가)의 ‘음절 끝소리 규칙’이 적용되어 ‘ㅍ’이 ‘ㅂ’으로 교체된 [옳고]가 된다. 또한 음절의 종성과는 관련이 없으나 [옳고]는 예사소리가 된소리로 바뀌는 ‘된소리되기’에 의해 ‘ㄱ’이 ‘기’으로 교체된 [옳꼬]가 된다. 그러므로 ‘옳고’

는 음절의 종성과 관련해서 (가)와 (나)에 해당하는 음운 변동이 모두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오답피하기

- ① ‘꽃힌’은 ‘ㄷ’이 ‘ㅎ’과 만나 거센소리인 ‘ㄷ’이 되는 ‘거센소리되기’(축약)가 일어나 [꼬친]이 된 것으로, (가)와 (나)에 해당하는 음운 변동이 모두 나타나지 않는다.
- ② ‘뫼이’는 연음으로 인해 [목시]가 된 후, 예사소리가 된소리로 바뀌는 ‘된소리되기’(교체)에 의해 [목씨]가 된 것으로, (가)와 (나)에 해당하는 음운 변동이 모두 나타나지 않는다.
- ③ ‘비웃’은 음절의 종성에 마찰음인 ‘ㅅ’이 온 경우에 해당한다. (가)에서 설명한 ‘음절 끝소리 규칙’(교체)에 의해 마찰음 ‘ㅅ’이 파열음 ‘ㄷ’으로 교체되어 [비운]이 된 것으로, (가)에 해당하는 음운 변동은 나타나지만 (나)에 해당하는 음운 변동은 나타나지 않는다.
- ④ ‘알고’는 ‘ㄱ’이 ‘ㅎ’과 만나 거센소리인 ‘ㅋ’이 되는 ‘거센소리되기’(축약)가 일어나 [안코]가 된 것으로, (가)와 (나)에 해당하는 음운 변동이 모두 나타나지 않는다.

A003

201611수능13

정답 ③

출제의도 중세 국어와 현대 국어의 비교

정답해설 동사는 목적어 필요 여부에 따라 타동사와 자동사로 구분된다. 우선 중세 국어의 ‘큰 믰스물 믰숨을 여러(열--+어)’와 ‘번개 구름(구름+을) 흐터(홀--+어)’, 현대 국어의 ‘큰 마음을 열어’와 ‘번개가 구름을 흠어’에서 ‘열다’와 ‘흠다’의 목적어가 모두 드러나 있으므로 중세 국어와 현대 국어에서 두 동사는 모두 타동사로 쓰였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중세 국어의 ‘自然히 믰스미(므숨이) 여러(열--+어)’와 ‘散心은 흐튼(홀--+은) 믰스미라(므숨-이라)’에서 ‘열다’와 ‘흠다’는 목적어를 필요로 하지 않기에 자동사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현대 국어의 경우 ‘열다’와 ‘흠다’는 ㉠와 ㉡의 첫째 번 문장에서처럼 목적어가 있을 때는 자연스럽게 쓰이지만, ‘자연히 마음이 열리어(열--+리--+어)’와 ‘산심은 흠어진(홀--+어지--+ㄴ) 마음이다.’에서처럼 목적어가 없을 경우에는 피동 표현이 결합돼 쓰이는 모습을 통해 자동사로는 쓰이지 않고 타동사로만 쓰임을 알 수 있다.

A004~A005

201611수능14~15

출제의도 동사나 형용사에 결합하는 접미사

지문 해설 이 글은 동사나 형용사에 결합하는 접미사의 다양한 문법적 특징과 결합 제약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동사나 형용사에 붙어 새로운 어간을 형성하거나 동사나 형용사의 어근에 붙어 품사를 바꾸는 것, 동사나 형용사에 붙어 사동의 의미를 더하거나 타동사에 붙어 피동의 의미를 더하는 것과 같은 접미사의 문법적 특징을 구체적 사례를 들어 밝히고 있다. 또한 하나의 접미사가 모든 동사나 형용사에 자유롭게 결합하지 못하고, 어근과 접미사 사이에는 다른 형태소가 끼어들 수 없다는 접미사의 결합 제약에 대해서도 함께 다루고 있다.

주제 동사나 형용사에 결합하는 접미사의 특징

A004

201611수능14

정답 ③

출제의도 단어 형성의 원리 정답

정답해설 제시문에서는 명사 ‘떡이’나 ‘넓이’는 각각 동사와 형용사의 어근에 접미사 ‘-이’가 붙어 형성된 단어로, ‘떡이’와 ‘넓이’의 ‘떡-’과 ‘넓-’은 서술어로 기능하지 못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에서 ‘놀이’는 동사의 어근 ‘놀-’에 접미사 ‘-이’가 붙어 형성된 단어에 해당하므로 서술어로 기능하지 못한다고 볼 수 있다.

오답피하기

- ① ‘녹이다’의 어간 ‘녹이-’는 ‘녹다’의 어간 ‘녹-’과 구별된다는 제시문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에서 ‘비위’의 어간 ‘비우-’는 ‘시간이 빈다.’에서 ‘빈다’의 어간 ‘비-’와 구별됨을 알 수 있다.
- ② ㉢에서 ‘높이’는 형용사 ‘높다’의 어근 ‘높-’에 접미사 ‘-이’가 붙어 형성된 단어이지만, ‘높이’의 품사는 명사가 아닌 부사이다.
- ④ 하나의 접미사가 모든 동사나 형용사에 자유롭게 결합하는 것은 아니라는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에서 ‘끓였다’의 어근인 ‘끓-’에 붙은 접미사 ‘-이-’ 역시 모든 동사에 자유롭게 결합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살다’(*살이다), ‘읽다’(*읽이다) 등과 같이 접미사 ‘-이-’가 결합하지 못하는 동사도 있다.
- ⑤ ㉤에서 ‘오시기’는 ‘오-+-시-+-기’로 분석된다. 어근과 접미사 사이에는 다른 형태소가 끼어들 수 없다는 제시문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기’는 접미사가 아님을 알 수 있다. 어간 ‘오-’와 명사형 어미 ‘-기’ 사이에 주체 높임의 선어말 어미 ‘-시-’가 끼어든 것에 해당한다. 명사형 어미가 붙은 경우 해당 단어의 품사는 바뀌지 않으므로, ‘오시기’의 품사는 명사가 아닌 동사이다.

A005

201611수능15

정답 ④

출제의도 피동사와 사동사 파악

정답해설 접미사가 동사나 형용사에 붙어 사동의 의미(주어가 동작을 다른 대상에게 하도록 시키는 것을 나타내는 의미)를 더한 예(㉠)와 접미사가 타동사에 붙어 피동(주어가 다른 대상에 의해 동작을 당하는 것을 나타내는 의미)의 의미를 더한 예(㉡)를 찾아야 한다. ④의 ㉠은 ‘보이지 않게 몸을 감추다.’라는 의미를 가진 동사 ‘숨다’에 접미사 ‘-기-’가 붙어 사동의 의미가 더해진 예에 해당하고, ㉡은 ‘눈꺼풀을 내려 눈동자를 덮다.’라는 의미를 가진 동사 ‘감다’에 접미사 ‘-기-’가 붙어 피동의 의미가 더해진 예에 해당한다.

오답피하기

- ① ㉠은 ‘기쁨, 슬픔 따위의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거나 아픔을 참지 못하여 눈물을 흘리다. 또는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소리를 내다.’라는 의미를 가진 동사 ‘울다’에 접미사 ‘-리-’가 붙어 사동의 의미가 더해졌고, ㉡은 ‘물체가 일정한 축을 중심으로 원을 그리면서 움직이다.’라는 의미를 가진 동사 ‘돌다’에 접미사 ‘-리-’가 붙어 사동의 의미가 더해졌다.
- ② ㉢은 ‘걱정이나 근심, 긴장 따위를 잊거나 풀어 없애다.’라는 의미를 가진 동사 ‘놓다’에 접미사 ‘-이-’가 붙어 피동의 의미가 더해졌고, ㉣은 ‘다 쓰지 않거나 정해진 수준에 이르지 않아 나머지가 있게 되다.’라는 의미를 가진 동사 ‘남다’에 접미사

‘-기-’가 붙어 사동의 의미가 더해졌다.

- ③ ㉤은 ‘물체의 전체 면이나 부분에 대하여 힘이나 무게를 가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동사 ‘누르다’에 접미사 ‘-리-’가 붙어 피동의 의미가 더해졌고, ㉠은 ‘물체를 잡아당기어 가르다.’라는 의미를 가진 동사 ‘찢다’에 접미사 ‘-기-’가 붙어 피동의 의미가 더해졌다.
- ⑤ ㉠은 ‘공중에 떠서 어떤 위치에서 다른 위치로 움직이다.’라는 의미를 가진 동사 ‘날다’에 접미사 ‘-리-’가 붙어 사동의 의미가 더해졌고, ㉡은 ‘어떤 일에 대한 책임을 지고 담당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동사 ‘맡다’에 접미사 ‘-기-’가 붙어 사동의 의미가 더해졌다.

201703서울

A007 ② A008 ① A006 ④ A009 ⑤ A010 ④

A007

201703서울12

정답 ②

출제의도 용언의 의미에 따른 서술어의 자릿수를 파악한다.

정답해설 ㉠이 주어 ‘글이’만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한 자리 서술어인데 주어와 부사어를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두 자리 서술어로 기술되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오답피하기

- ① ㉠은 주어 ‘불씨가’만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한 자리 서술어로 쓰였다.
- ③ ㉢은 주어인 ‘그는’, 목적어인 ‘벼슬을’을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두 자리 서술어로 쓰였다.
- ④ ㉣은 주어인 ‘그는’, 목적어인 ‘일손을’을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두 자리 서술어로 쓰였다.
- ⑤ ㉤은 주어인 ‘형은’, 목적어인 ‘책을’, 부사어인 ‘책상 위에’를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세 자리 서술어로 쓰였다.

A008

201703서울13

정답 ①

출제의도 단어의 의미를 파악한다.

정답해설 ‘채’는 의존 명사로 ‘이미 있는 상태 그대로 있다는 뜻을 나타내는 말’이다. ‘체’는 의존 명사로 ‘그렇듯하게 꾸미는 거짓 태도나 모양’을 의미한다. ‘-째’는 접사로 ‘그대로, 또는 전부’를 의미한다. 따라서 ‘껍질째’는 ‘껍질’이라는 명사에 ‘-째’라는 접사가 붙어 ‘껍질 그대로 또는 전부’라는 의미가 되므로 바르게 쓰였다.

오답피하기

- ② ‘앞아 있는 상태 그대로 있다.’라는 의미로 쓰인 것이므로 의존 명사 ‘채’가 쓰여 ‘앞아 채로’라고 써야 한다.
- ③ ‘똑똑한 척 꾸미는 거짓 태도나 모양’이라는 의미로 쓰인 것이므로 의존 명사 ‘체’가 쓰여 ‘똑똑한 체’라고 써야 한다.
- ④ ‘살아 있는 상태 그대로’라는 의미로 쓰인 것이므로 의존 명사 ‘채’가 쓰여 ‘산 채’라고 써야 한다.
- ⑤ ‘죽은 척 꾸미는 거짓 태도나 모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의존 명사 ‘체’가 쓰여 ‘죽은 체를 했다’라고 써야 한다.

A006

201703서울11

정답 ④

출제의도 접사와 어미의 쓰임을 이해한다.

정답해설 ㉠은 용언의 어간 '살-'과 명사형 어미 '-기'가 결합한 것이고, 부사어 '홀로'의 수식을 받고 있으며 '살-'은 서술하는 기능을 유지하고 있다. ㉡은 용언의 어간 '자-'와 명사형 어미 '-ㅁ'이 결합한 것이고, 부사어 '충분히'의 수식을 받고 있으며 '자-'는 서술하는 기능을 유지하고 있다. ㉢은 어근 '얼-'에 접사 '-음'이 결합한 명사로서 '시원한'이라는 관형어의 수식을 받는다. ㉣은 어근 '놀-'에 접사 '-이'가 결합한 명사로서 '건전한'이라는 관형어의 수식을 받는다. ㉤은 용언의 어간 '아름답-'에 명사형 어미 '-기'가 결합한 것이고, 부사어 '매우'의 수식을 받는다.

오답피하기

- ① ㉠에 해당되는 것으로 고른 ㉠, ㉡과 ㉢에 해당되는 것으로 고른 ㉣, ㉤은 적절하나 ㉤에 해당되는 것으로 고른 ㉤은 ㉠에 해당되므로 적절하지 않다.
- ② ㉠에 해당되는 것으로 고른 것은 적절하나 ㉢에 해당되는 것으로 고른 것 중 ㉡은 ㉠에 해당하므로 적절하지 않다.
- ③ ㉠에 해당되는 것으로 고른 ㉢과 ㉤은 ㉢에 해당되므로 적절하지 않다.
- ⑤ ㉠에 해당되는 것으로 고른 ㉡은 적절하나 ㉢과 ㉤은 ㉢에 해당되므로 적절하지 않다. ㉤에 해당되는 것으로 고른 ㉠과 ㉤은 ㉠에 해당되는 것으로 적절하지 않다.

A009

201703서울14

정답 ⑤

출제의도 중세 국어와 현대 국어의 모음조화를 이해한다.

정답해설 15세기 국어에서는 양성 모음으로 끝난 어간에 붙는 연결 어미 '-야'가 'ㅎ-' 뒤에서 '-야'로 바뀌었다. 현대 국어에서도 '하-' 뒤에서는 '-어'가 나타난다. 활용형을 구성하는 모음의 조합을 보면 'ㅏㅓㅎ야'는 모음조화를 지키고 있으나, 현대 국어의 '가득하여'는 모음조화를 지키고 있지 않으므로, ㉠과 ㉡을 모두 확인할 수 있는 예로 적절하지 않다.

오답피하기

- ① 15세기 국어와 현대 국어에서 용언 어간 '알-'의 모음이 양성 모음이므로 어미 '-야'가 선택된 것이다. '아라'는 '알아'를 연결 표기한 것이다.
- ② 15세기 국어와 현대 국어에서 용언 어간 '먹-'의 모음이 음성 모음이므로 어미 '-어'가 선택된 것이다. '머거'는 '먹어'를 연결 표기한 것이다.
- ③ 15세기 국어에서는 '췌오-'의 끝음절 모음이 양성 모음이므로 어미 '-야'가 선택된 것이고, 현대 국어에서는 '깨우-'의 끝음절 모음이 음성 모음이므로 어미 '-어'를 선택한 것이다. 따라서 모두 모음조화를 지킨 사례로 볼 수 있다.
- ④ 15세기 국어에서 용언 어간 '쓰-'의 끝음절 모음이 음성 모음이므로 어미 '-어'가 선택된 것이고, 현대 국어에서도 '쓰-'의 끝음절 모음이 음성 모음이므로 어미 '-어'가 선택된 것이다.

A010

201703서울15

정답 ④

출제의도 중세 국어의 모음조화를 이해한다.

정답해설 주어진 글에서 조사 '와'와 '과'는 모음조화가 적용되지 않았다고 설명하고 있다. '와'와 '과'의 모음은 'ㅏ'로 동일하므로 모음조화가 적용되는 이형태가 아니다. 따라서 17세기에 모음조화의 약화에 따라 조사 사용에 혼란이 있었음을 '초와'와 '파과'를 통해 확인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피하기

- ① '겨슬'의 'ㅑ'와 'ㅡ'는 음성 모음에 해당하고, '허락'의 'ㅑ'는 양성 모음이다. 따라서 한 단어 내에서 모음조화가 잘 지켜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 ② '오슬'은 체언 '옷'에 목적격 조사 '을'이 결합한 것이고, '죽을'은 체언 '죽'에 목적격 조사 '을'이 결합한 것이다. '오슬'은 양성 모음끼리 결합한 것이고, '죽을'은 음성 모음끼리 결합한 것이므로 체언에 목적격 조사가 결합할 때 모음조화가 지켜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 ③ '허더라'에서 '-더-'가 양성 모음을 지닌 'ㅎ-' 뒤에 결합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용언 어간에 '-더-'가 결합할 때에는 모음조화가 적용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 ⑤ '늑'과 '늑'의 차이는 둘째 음절의 'ㅑ'가 'ㅡ'로 변한 것이다.

201704경기

A012 ③ A013 ① A014 ④ A015 ① A011 ④

A012

201704경기12

정답 ③

출제의도 띄어쓰기 탐구하기

정답해설 ㉠에 사용된 '집어먹다'는 국어사전에 '집어먹다1'로 등재된 합성 동사이다. (가)에 따르면 합성 동사는 반드시 붙여 써야 하고, 각각의 용언이 주어와 호응할 경우 두 용언은 반드시 띄어 써야 하므로 적절하지 않다.

오답피하기

- ① (나)를 참고할 때 ㉡은 국어사전에 '집어먹다2'로 등재된 단어이므로 합성 동사이다. (가)에 따르면 합성 동사는 반드시 붙여 써야 하므로 적절하다.
- ② ㉢은 뒤의 용언 '먹었다'만으로 문장이 성립되지 않으므로 두 용언은 '본용언+보조 용언'의 관계이다. (가)에 따르면 본용언과 보조 용언은 띄어 쓰는 것이 원칙이라고 했으므로 적절하다.
- ④ ㉣은 두 용언 사이에 다른 문장 성분이 올 수 있으므로 두 용언은 '본용언+본용언'의 관계이다. (가)에 따르면 이러한 경우에는 반드시 띄어 써야 하므로 적절하다.
- ⑤ ㉤은 사전에 등재된 단어가 아니고, 뒤에 용언 '먹었다'만으로 문장이 성립되지 않으므로 두 용언은 '본용언+보조 용언'의 관계이다. (가)에 따르면 본용언과 보조 용언은 띄어 쓰는 것이 원칙이지만 붙여 쓰는 것도 허용한다고 했으므로 적절하다.

A013

201704경기13

정답 ①

출제의도 문장의 짜임 분석하기

정답해설 '그가 아끼던 제자가 상을 받았음을 그녀가 알려 줬다.'에서 문장 전체의 서술어는 '알려 줬다'이고, '알려 줬다'의 주어는 '그녀가'이다. 그리고 명사절인 '제자가 상을 받았음'에서 '받았음'의 주어는 '제자가'이다. 또 관형절인 '그가 아끼던'에서 '아끼던'의 주어는 '그가'이다.

A014

201704경기14

정답 ④

출제의도 중세 국어의 높임법 이해하기

정답해설 ㉔은 서술의 객체인 '聖宗(성종)'을 높이기 위해 사용된 특수한 어휘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오답피하기

- ① ㉑에는 객체를 높이기 위해 현대 국어에서 사용하지 않는 객체 높임 선어말 어미를 사용하였으므로 적절하다.
- ② ㉒에는 문장의 주어인 '聖孫(성손)'을 높이기 위해 선어말 어미가 사용되었고, 현대 국어에서도 선어말 어미 '-시-'를 통해 주체 높임이 실현된다고 했으므로 적절하다.
- ③ ㉓에는 상대방을 높이기 위해 선어말 어미 '-이-'가 사용되었고, 현대 국어에서는 종결 표현에 의해 상대 높임이 실현된다고 했으므로 적절하다.
- ⑤ ㉕에는 동작의 주체와 상대방을 높이기 위해 각각 선어말 어미 '-시-'와 '-이-'가 사용되었으므로 적절하다.

A015

201704경기15

정답 ①

출제의도 현대 국어의 높임법 이해하기

정답해설 '아버지는 허리가 아프셔서 한영이가 아버지 대신 할아버지를 뵙고 왔습니다.'에서는 '아프셔서'의 '-시-'를 통해 높여야 할 대상의 신체 일부분, 즉 '허리'를 높이는 간접 높임이 실현되었다. 또 '왔습니다'에서는 상대를 높이기 위해 '-습니다'를 사용했다. 그리고 '뵙고'는 객체를 높이기 위한 특수한 어휘이므로 객체 높임이 실현되었다.

A011

201704경기11

정답 ④

출제의도 음운의 변동 이해하기

정답해설 ㉔'묻히고'에서 '묻-'은 받침이 'ㄷ'인 형태소이고, '-히-'는 접미사이므로 형식 형태소이다. <보기 1>에 근거할 때, '묻-'의 'ㄷ'이 '-히-'의 'ㅎ'과 결합하여 [티]이 된 후 구개음화 현상이 일어나 [츠]으로 교체되어 [무치고]로 발음되므로 적절하다.

오답피하기

- ① ㉑은 '붙-'에 형식 형태소인 접미사 '-이-'와 관형사형 어미 '-ㄴ'이 결합된 단어이다. 따라서 '붙-'은 접미사의 모음 'ㅣ'와 만나 구개음화 현상이 일어나므로 적절하지 않다.

- ② ㉒의 '-이'는 형식 형태소이고, '날'의 받침 'ㄷ'은 [츠]으로 발음되므로 적절하지 않다.
- ③ ㉓에서 '이랑'은 모음 'ㅣ'로 시작하는 실질 형태소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 ⑤ ㉕에서 '이불'은 실질 형태소로, 구개음화 현상이 일어나는 조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201705전북

A017 ② A018 ① A019 ① A020 ④ A016 ②

A017

201705전북12

정답 ②

출제의도 단어의 구조 이해

정답해설 '탐스럽다'는 '탐'이라는 어근에 '-스럽다'라는 접사가 결합한 복합어이다. 하지만 '스친다'는 '스치-'라는 용언의 어간에 '-ㄴ-'이라는 선어말 어미와 '-다'라는 어말 어미가 결합한 단일어이다.

오답피하기

- ① '바람'은 하나의 형태소로 이루어져 있지만 '꽃봉오리'는 '꽃'이라는 어근과 '봉오리'라는 어근이 결합한 합성어이다.
- ③ ㉑의 '이'와 ㉒의 '을'은 모두 조사로서, 자립할 수 있는 말의 뒤에 붙어 문법적 기능을 나타내는 말이다.
- ④ ㉓의 '헛-'은 '기침'이라는 명사와 결합하였으며 ㉔의 '헛-'은 '디디다'라는 동사와 결합하였으므로 '헛-'이 두 가지 이상의 품사의 어근과 결합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 ⑤ '큰아버지'는 '큰'이라는 어근과 '아버지'라는 어근이 결합한 합성어이며, '강물'은 '강'이라는 어근과 '물'이라는 어근이 결합한 합성어이다.

A018

201705전북13

정답 ①

출제의도 합성어의 구조 이해

정답해설 '새해'는 '새'라는 관형사에 '해'라는 명사가 결합하여 합성 명사가 된 경우이므로 명사와 명사로 이루어졌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피하기

- ② '뒹다'라는 동사의 어간 '뒹-'과 '밥'이라는 명사로 이루어진 단어이므로 적절하다.
- ③ '편'이라는 명사와 '들다'라는 동사로 이루어진 단어이므로 적절하다.
- ④ '살랑'이라는 부사가 반복하여 이루어진 단어이므로 적절하다.
- ⑤ '남'이라는 명사와 '다르다'라는 형용사로 이루어진 단어이므로 적절하다.

A019

201705전북14

정답 ①

출제의도 음운 변동의 이해와 적용

정답해설 '숨이불'이 [숨니불]로 발음되는 것은 비음화가 아니라 음운의 첨가에 해당한다. 즉 합성어 '숨이불'의 앞 단어 '숨'의 끝이 자음이고, 뒤 단어 '이불'의 첫음절이 '이'이기 때문에 'ㄴ' 음을 첨가하여 '니'로 발음된 사례이다.

오답피하기

- ② 'ㄹ'의 앞뒤에 오는 'ㄴ'이 [ㄹ]로 발음되는 현상이니 유음화에 해당한다.
- ③ '돋'의 종성 'ㄷ'이 뒤 음절에 나오는 'ㅣ'의 영향을 받아 [ㄷ]으로 발음되고 있으므로 구개음화에 해당한다.
- ④ '부엌문'은 먼저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따라 [부엌문]으로 발음되고 이후 비음화 현상이 일어나 [부엌문]으로 발음된다.
- ⑤ '낮잠'의 '낮'이 [남]으로 발음되는 것은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며, '잠'이 [잠]으로 발음되는 것은 된소리되기에 해당한다.

A020

201705전북15

정답 ④

출제의도 안긴문장, 안은문장에 대한 이해

정답해설 ㄹ의 전체 주어는 '것은', 서술어는 '사실이다'이다. 그리고 '청소년들이 고민을 하는'이 '것은'을 수식하는 관형절로 안겨 있다. '청소년들이'는 안긴문장의 주어에 해당한다.

오답피하기

- ① ㄱ은 '그가 우리를 사랑했음'이라는 목적어 역할을 하는 명사절을 안고 있다.
- ② ㄴ은 '소리도 없이'라는 부사절을 안은문장이다. 안긴문장의 주어는 '소리도'이다.
- ③ ㄷ은 '활자가 너무 작다'를 서술절로 안은문장으로, 안은문장의 주어는 '책은'이다.
- ⑤ ㅁ은 '영화를 좋아한다'가 인용절로 안겨 있으며, 인용절의 주어는 '철수가'이지만 생략되었다.

A016

201705전북11

정답 ②

출제의도 중세 국어와 근대 국어의 표기법 이해와 적용

정답해설 <보기>의 탐구 자료에서 중세 국어 '말씀'이 조사 '이'와 결합한 것으로, 받침이 있는 체언에 모음으로 시작되는 조사가 결합하였기 때문에 단어의 기본 형태를 밝혀 적지 않고 소리 나는 대로 표기한 것이다.

오답피하기

- ① 중세 국어 '기픈'은 용언의 어간 '깊-'과 어미 '-은'이 결합한 것으로, 받침이 있는 용언의 어간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결합하였기 때문에 이어적기를 한 표기에 해당한다.
- ③ 근대 국어에서는 이어 적기와 거듭 적기, 끊어 적기의 표기가 모두 사용되었으므로, 중세 국어 '쁘들'은 '쁘들(이어 적기) / 뿌을(끊어 적기) / 뿌들(거듭 적기)'로 표기하는 것이 가능했다.
- ④ 근대 국어 '깊은'은 단어의 기본 형태를 밝혀 적는 끊어 적기를 한 것이다.
- ⑤ 근대 국어 '말씀'이 '말씀'이 조사 '이'와 결합한 것으로, 거듭 적기로 표기한 말에 해당한다. 이는 이어 적기에서 끊어 적기 방식으로 바뀌어 가는 과도기적 표기에 해당한다.

201706평가원

A021 ③ A022 ① A023 ① A024 ② A025 ④

A021~A022

201706평가원11~12

출제의도 상하 관계를 나타내는 단어들

지문해설 이 글은 단어의 의미 관계 중 상하 관계의 개념에 대해 정리하고, 상하 관계를 나타내는 단어들의 특성을 구체적인 예를 바탕으로 설명하고 있는 글이다. 특히 상하 관계에 있어 같은 계층에 있는 공하의어 사이에는 비양립 관계가 성립한다는 점, 하의어들은 상의어를 의미적으로 함의한다는 점, 한 상의어가 같은 계층의 두 단어만을 공하의어로 포함할 경우 상보적 반의 관계가 성립한다는 점에 대해 상술하고 있다.

주제 상하 관계를 나타내는 단어들의 특성

A021

201706평가원11

정답 ③

출제의도 어휘의 의미 탐구

정답해설 상하 관계에서는 하의어들이 상의어의 의미를 이어받아 상의어를 의미적으로 함의한다. 즉 상의어보다 의미 자질이 많은 하의어가 상의어를 의미적으로 함의한다는 것이다. 제시된 사전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기구'는 '악기'의 상의어이고, '악기'는 '북'의 상의어이다. 그러므로 '악기'는 '기구'를 의미적으로 함의하고 '북'은 '악기'를 의미적으로 함의한다고 볼 수 있다.

오답피하기

- ① 상의어일수록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의미를 지니며 하의어일수록 구체적이고 한정적인 의미를 지닌다. '타악기'는 '실로폰'의 상의어로서 '실로폰'보다 포괄적인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 있다.
- ② '타악기'가 '두드려서 소리를 내는 악기'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북'은 '타악기'의 하의어에 해당하므로 [두드림]이라는 의미 자질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 ④ 공하의어는 상의어인 어떤 단어에 대해 같은 계층에 있는 하의어를 일컫는 말이다. 제시된 사전의 내용을 통해 볼 때 '기구-악기-타악기-심벌즈'라는 상하 관계를 만들어 낼 수 있으므로, '타악기'와 '심벌즈'는 모두 '기구'의 하의어에 해당하지만 '기구'의 공하의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 ⑤ 하의어는 상의어보다 의미 자질을 더 가져 의미 자질 개수가 더 많다. '악기'의 사전 풀이에 비추어 볼 때 '현악기'와 '관악기'는 '악기'의 공하의어에 해당함을 알 수 있는데, 이를 통해 '현악기'와 '관악기'가 '악기'의 상의어인 '기구'보다 의미 자질의 개수가 더 많다고 볼 수 있다.

A022

201706평가원12

정답 ①

출제의도 의미 관계 파악

정답해설 비양립 관계와 상보적 반의 관계를 모두 만족시키는 단어 쌍을 찾는 문항이다. 비양립 관계와 상보적 반의 관계를 모두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하나의 상의어가 같은 계층의 두 단어만을 공하의어로 포함하면서 그 두 단어들 사이 양립하지 않으며 반대의 의미를 나타내야 한다. <보기>의 문맥에서 '지구의 양극'이라는 표현으로 보아 '북극'과 '남극'은 '극'이라는 상의어에 대해 공하의어이다. 그리고 '북극'이면서 동시에 '남극'인 경우는 없어 비양립 관계가 성립하고, '극'이 '북극'과 '남극'만을 공하의어로 포함하면서 '북극'과 '남극'이 반대의 의미를 나타내는 상보적 반의 관계도 성립하고 있으므로 ㉠과 ㉡을 모두 만족시키는 단어 쌍에 해당한다.

오답피하기

- ② 상의어를 '계절'로 본다면 '여름'과 '겨울'은 공하의어이고, '여름'이면서 동시에 '겨울'일 수는 없어 비양립 관계가 성립한다. 하지만 '계절'에는 '봄', '가을'이라는 하의어도 있어 상보적 반의 관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 ③ 상의어를 '조류'로 본다면 '펭귄'과 '갈매기'는 공하의어이고, '펭귄'이면서 동시에 '갈매기'일 수는 없어 비양립 관계가 성립한다. 하지만 '조류'에는 '닭', '오리' 등과 같은 하의어도 있어 상보적 반의 관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 ④ '여름'과 '계절'은 공하의어에 해당하지 않아 비양립 관계도 성립하지 않고, 상보적 반의 관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 ⑤ 상의어를 '동물'로 본다면 '개'와 '갈매기'는 공하의어이고 '개'이면서 동시에 '갈매기'일 수는 없어 비양립 관계가 성립한다. 하지만 '동물'에는 '펭귄', '닭', '오리' 등과 같은 하의어도 있어 상보적 반의 관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A023

201706평가원13

정답 ①

출제의도 음운 변동 이해, 적용

정답해설 교체, 탈락, 첨가, 축약의 음운 변동이 일어날 때 나타나는 음운 개수의 변화 양상을 바르게 이해하고 있는지 묻고 있는 문항이다. 음운의 개수는 교체가 일어나면 변하지 않고, 탈락이나 축약이 일어나면 각각 한 개가 줄어든다. 반면 첨가가 일어나면 한 개가 늘어난다. '흙하고'는 자음군 단순화에 의해 'ㄱ'이 탈락하여 [흐카고]로 바뀐 후 다시 자음 축약에 의해 'ㄱ'과 'ㅎ'이 축약되어 [흐카고]가 된다. 탈락과 축약이 일어나 결과적으로 음운의 개수가 두 개 줄어들었다.

오답피하기

- ② '저녁연기'는 ㄴ첨가에 의해 'ㄴ'이 첨가되어 [저녁년기]로 바뀐 후 다시 비음화에 의해 'ㄱ'이 'ㅇ'으로 교체되어 [저녕년기]가 된다. 첨가 및 교체가 한 번 일어나 음운의 개수는 한 개 늘어났다.
- ③ '부엌문'은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의해 'ㄱ'이 'ㅇ'으로 교체되어 [부엌문]으로 바뀐 후 다시 비음화에 의해 'ㄱ'이 'ㅇ'으로 교체되어 [부엌문]이 된다. '부엌'은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의해 'ㄱ'이 'ㅇ'으로 교체되어 [부논]으로 바뀐 후 다시 비음화에 의해 'ㄱ'이 'ㅇ'으로 교체되어 [부논]이 된다. '부엌문', '부엌'은 각각 교체가 두 번 일어나 음운의 개수는 모두 변하지 않았다.
- ④ '엷지'는 자음군 단순화에 의해 'ㄷ'이 탈락하여 [언지]로 바뀐 후 다시 경음화에 의해 'ㄷ'이 'ㅈ'으로 교체되어 [언찌]가 된다. '뚥고'는 자음군 단순화에 의해 'ㄱ'이 탈락하여 [뚥고]로 바뀐

후 다시 경음화에 의해 'ㄱ'이 'ㄱ'으로 교체되어 [뚥고]가 된다. '엷지'와 '뚥고'는 각각 탈락과 교체가 한 번씩 일어나 음운의 개수는 모두 한 개씩 줄어들었다.

- ⑤ '넙네'는 자음군 단순화에 의해 'ㄴ'이 탈락하여 [넙네]로 바뀐 후 유음화에 의해 'ㄴ'이 'ㄹ'로 교체되어 [넙네]가 된다. '밝는'은 자음군 단순화에 의해 'ㄴ'이 탈락하여 [박는]으로 바뀐 후 비음화에 의해 'ㄱ'이 'ㅇ'으로 교체되어 [방는]이 된다. '넙네'와 '밝는'은 각각 탈락과 교체가 한 번씩 일어나 음운의 개수는 모두 한 개씩 줄어들었다.

A024

201706평가원14

정답 ②

출제의도 문장의 짜임새 파악

정답해설 문장 성분과 문장 구조에 대해 주어진 예문을 탐구하는 문항이다. ㉠에는 '피곤해하던'이라는 관형절과 '엄마가 모르게'라는 부사절이 안겨 있다. 또한 ㉡에는 '그가 시장에서 산'이라는 관형절과 '값이 비싸다'라는 서술절이 안겨 있다. ㉢에는 ㉡과 달리 서술어의 기능을 하는 안긴문장인 서술절이 안겨 있지 않다.

오답피하기

- ① 체언을 수식하는 안긴문장은 관형절을 의미한다. ㉠에는 '따뜻한'이라는 관형절이, ㉡에는 '내가 만난'이라는 관형절이 안겨 있다.
- ③ ㉠에는 명사절 '봄이 빨리 오기' 속에 부사어 '빨리'가 포함되어 있고, ㉡에는 서술절 '마음이 정말 착하다' 속에 부사어 '정말'이 포함되어 있다.
- ④ ㉠에 안겨 있는 문장인 '따뜻한'에는 '봄이'라는 주어가 생략되어 있고, ㉡에 안겨 있는 문장인 '그가 시장에서 산'에는 '배추를'이라는 목적어가 생략되어 있다.
- ⑤ ㉢에서 부사절 '엄마가 모르게'는 부사어의 기능을 하는 안긴문장이고, ㉡에서 관형절 '그가 시장에서 산'은 관형어의 기능을 하는 안긴문장이다.

A025

201706평가원15

정답 ④

출제의도 중세 국어 문법의 이해

정답해설 중세 국어에 나타나는 서술격 조사의 실현 양상을 탐구하는 문항이다. <보기 1>의 설명에 따를 때, 중세 국어에서는 서술격 조사가 앞에 결합하는 체언의 끝소리에 따라 다르게 실현되었다. 즉 (1) 체언의 끝소리가 자음일 때는 '이', (2) 체언의 끝소리가 모음 '이'이거나 반모음 'ㅣ'일 때는 아무런 형태가 나타나지 않는 '영 형태(Ø)', (3) 체언의 끝소리가 모음 '이'도, 반모음 'ㅣ'도 아닌 모음일 때는 'ㅣ'로 실현되었다. <보기 2>의 ㉠에서는 체언 '니' 뒤에 서술격 조사가 붙는 경우이므로 (2)에 해당해 형태가 실현되지 않는 '니+--라'로 쓰이고, ㉡에서는 체언 '바' 뒤에 서술격 조사가 붙는 경우이므로 (3)에 해당해 'ㅣ'로 실현되는 '바+ㅣ+--라'로 쓰인다. 그리고 ㉢에서는 체언 '다락' 뒤에 서술격 조사가 붙는 경우이므로 (1)에 해당해 '이'로 실현되는 '다락+이+--라'로 쓰인다. ㉣에는 '니라', ㉤에는 '바'의 'ㅣ'와 'ㅣ'가 결합한 형태인 '배라', ㉥에는 체언의 끝소리가 서술격 조사 '이'의 첫소리로 연음

된 형태인 '다라기라'가 들어가야 적절하다.

201707사관학교

- A027 ② A028 ④ A029 ③ A030 ② A026 ②

A027 201707사관학교12 정답 ②

A028 201707사관학교13 정답 ④

A029 201707사관학교14 정답 ③

A030 201707사관학교15 정답 ②

A026 201707사관학교11 정답 ②

201707경찰대

- A031 ① A032 ② A033 ⑤ A034 ③ A035 ②
A036 ③ A037 ① A038 ② A039 ① A040 ⑤
A041 ③

A031 201707경찰대1 정답 ①

A032 201707경찰대2 정답 ②

A033 201707경찰대3 정답 ⑤

A034 201707경찰대4 정답 ③

A035 201707경찰대5 정답 ②

A036 201707경찰대6 정답 ③

A037 201707경찰대8 정답 ①

A038 201707경찰대9 정답 ②

A039 201707경찰대10 정답 ①

A040 201707경찰대11 정답 ⑤

A041 201707경찰대12 정답 ③

201707인천

- A042 ① A043 ② A046 ⑤ A044 ④ A045 ③

A042 201707인천11

정답 ①
출제의도 음운의 변동 이해하기
정답해설 '깡다[깡따]'는 '깡[깡]'에서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나타나고, '다[따]'에서 된소리되기가 나타난다. 두 가지 모두 음운의 교체에 해당하므로 '깡다[깡따]'는 한 가지 유형의 음운 변동이 나타난 경우이다.
오답피하기
②, ③ 첨가('ㄴ' 첨가), 교체(비음화)가 나타난다.
④ 탈락(자음군 단순화), 축약(거센소리되기)이 나타난다.
⑤ 첨가('ㄴ' 첨가), 교체(유음화, 된소리되기)가 나타난다.

A043

201707인천12

정답 ②

출제의도 접문장의 특징 파악하기

정답해설 흐름장 ㉠이 관형절인 '철수가 산책을 한'의 형태가 되어 ㉡에 안기는 과정에서 ㉢의 부사어 '공원에서'가 생략되었다.

A046

201707인천15

정답 ⑤

출제의도 중세 국어의 특징 파악하기

정답해설 ㉠의 '를'은 목적격 조사로, 모음으로 끝나는 체언과 결합했음을 알 수 있다.

오답피하기

③ ㉡은 모음으로 끝나는 체언 '바'에 주격 조사 '이'가 붙은 것이다.

A044

201707인천13

정답 ④

출제의도 품사의 분류 파악하기

정답해설 ㉠에 조사는 '까지', '는', '을', '도'가 있으며, ㉡에는 '께서', '로', '를'이 있다. 따라서 조사는 ㉠에4개, ㉡에는 3개가 있다.

오답피하기

② '은'은 뒤에 오는 체언인 '재료'를 수식하는 수식언(관형사)이다.
⑤ 가변어는 ㉠에 2개('모르고', '있다'), ㉡에도 2개('곱게', '빚으셨다')가 있다. '곱게'는 용언(형용사)인 '곱다'가 '고와', '고우니'처럼 활용되는 형태이므로 가변어이다.

A045

201707인천14

정답 ③

출제의도 품사의 통용 파악하기

정답해설 '식구 모두가 여행을 떠났다.'의 '모두'는 조사 '가'와 결합하여 문장에서 주어의 기능을 하는 체언(명사)이고, '그릇에 담긴 소금을 모두 쏟았다.'의 '모두'는 용언 '쏟았다'를 수식하는 부사이다.

오답피하기

① 수사와 관형사(수관형사)이다.
② 동사와 형용사이다.
④ 모두 조사이다.
⑤ 부사와 조사이다.

정답 ④

출제의도 국어사전의 자료 탐구하기

정답해설 벗다1, 2의 문형 정보는[...을]이므로 벗다1, 2는 주어를 포함하여 두 개의 문장 성분을 요구하는 두 자리 서술어이고, 벗다3은 문형 정보가 별도로 제시되지 않았으므로 주어만을 요구하는 한 자리 서술어임을 알 수 있다.

오답피하기

① 입다1의 용례 '옷을 입다'와 벗다1의 용례 '옷을 벗다'를 통해 입다1과 벗다1이 반의 관계임을 알 수 있다.
② '나아, 나오니, 낫는'과 같이 어간의 형태가 변하기도 하는 '나다'와 달리 '벗다'는 '벗어, 벗으니, 벗는'과 같이 어간이나 어미의 형태가 유지되므로 규칙 활용을 한다고 할 수 있다.
③ '입다'와 '벗다' 모두 동사로만 사용된다.
⑤ 혐의를 벗는 것은 누명을 씻는 것과 의미가 유사하므로 벗다2의 사동사가 사용되었다고 볼 수 있다.

A048

201708대구12

정답 ②

출제의도 정확한 문장 표현

정답해설 ②에서는 문법적으로 잘못된 요소가 확인되지 않는다.

오답피하기

① '노래와 춤을 추면서'라는 부분에서 목적어와 서술어가 호응되지 않는다. '그는 매우 기쁜 나머지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면서 즐거워했다.' 정도로 수정해야 한다.
③ '계속하기'에 해당하는 목적어가 존재하지 않는 문장이다. '그는 그 일이 너무 고통스러웠지만, 그 일을 계속하기로 결심했다.' 정도로 수정해야 한다.
④ 부사 '결코'는 ('아니다', '없다', '못 하다' 따위의 부정어와 함께 쓰여) '어떤 경우에도 절대로'라는 뜻을 나타내므로 '우리는 끊임없는 노력을 통해 반드시 우승을 이루고야 말 것이다.' 정도로 수정해야 한다.
⑤ 주어와 서술어가 호응되지 않는 문장이다.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힘든 시련에도 우리는 학업을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정도로 수정해야 한다.

A049

201708대구13

정답 ④

출제의도 접문장의 종류 구분

정답해설 ㉡은 관계 관형절을 안고 있는 문장으로, 관형절을 삭제하면 '준영이는 골목으로 가보았다.'로 문장이 자연스럽지만, ㉠은 동격 관형절을 안고 있는 문장으로 관형절을 삭제하면 '준영이는 경험을 다시 떠올렸다.'로 문장이 자연스럽지 못하다.

A050

201708대구14

정답 ⑤

출제의도 중세 국어 어휘의 이해

정답해설 '구무'는 모음으로 시작하는 처소의 부사격 조사 '의'와

201708대구

A047 ④ A048 ② A049 ④ A050 ⑤ A051 ②

A047

201708대구11

결합할 때 체언의 끝 모음 ‘ㄴ’이 탈락하고 자음 ‘ㄱ’이 덧생겨 ‘굼기’로 나타난다.

오답피하기

- ①, ② ‘굼기’를 형태소 분석할 경우 ‘구무(구멍)’과 ‘의(에)’로 분석할 수 있다.
- ③ ‘구무’에 처소의 부사격 조사 ‘의’가 결합하면서 체언의 끝 모음 ‘ㄴ’이 탈락한 것이다.
- ④ ‘구무’는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인 공동의 부사격 조사 ‘와’와 결합할 때 예외적으로 형태를 그대로 유지한다. 따라서 ‘구무+와’는 ‘굼과’가 아니라 ‘구무와’로 나타나게 된다.

A051

201708대구15

정답 ②

출제의도 음운 변동의 이해

정답해설 중세 국어에서 ㅎ중성 체언인 ‘안’은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와 결합할 때 ㅎ이 뒤따르는 모음에 연음한다. 따라서 ‘안’과 주격 조사 ‘이’가 결합할 경우 ‘안히’로 나타나게 된다.

오답피하기

- ① 중세 국어와는 달리 현대 국어에서는 조사와 결합할 때 체언의 형태가 바뀌는 경우는 없다.
- ③ ㅎ 중성 체언은 관형격 조사인 ‘ㅅ’과 결합할 때는 나타나지 않지만 그 외에 ‘ㄱ, ㄷ’으로 시작하는 조사와 결합하게 될 경우 ‘ㄱ, ㅌ’으로 축약되어 나타난다. 따라서 ‘안과’로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 ④ ‘안+밖’이 ‘안팎’이 되는 과정에서 ‘ㅂ’이 ‘ㅍ’이 되는 것은 중세 국어의 ㅎ 중성 체언이었던 ‘안’에 ‘ㅎ’의 흔적이 남아 ‘ㅂ’과 결합하여 음운이 축약되는 현상으로 볼 수 있다.
- ⑤ ‘옳지 않다’가 [올치 안타]로 축약되는 현상은 ‘옳-’과 ‘않-’이 용언의 어간이므로 ㅎ 중성 체언과는 관련이 없는 것이다.

201708전북

A052 ④
A053 ①
A054 ②
A055 ②
A056 ①

A052

201708전북11

정답 ④

정답해설 ‘열다’의 경우 활용형의 어간이 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나, ‘닫다’의 경우 활용형의 어간이 변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A053

201708전북12

정답 ①

정답해설 ‘걸옷’을 [거돋]으로 발음하는 것은, 첫음절 ‘걸’의 뒤에 연결된 ‘옷’이 ‘ㄱ’로 시작되는 실질 형태소이기 때문에, ‘걸’의 받침 ‘ㅌ’이 대표음 ‘ㄷ’으로 바뀌어 뒤 음절 첫소리로 옮겨 발음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는 한 음운이 다른 음운으로 교체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오답피하기

- ② ‘미달이’를 [미달이]로 발음하는 것은, 둘째 음절 ‘달’의 받침 ‘ㄷ’이 접미사의 모음 ‘ㅣ’와 결합하면서 ‘ㅈ’으로 바뀌어 뒤 음절 첫소리로 옮겨 발음하기 때문이다. 이는 음운이 축약된 것이 아니라 교체된 것이다.
- ③ ‘색연필’을 [생년필]로 발음하는 것은, 합성어나 파생어에서 앞 단어나 접두사의 끝이 자음이고 뒤 단어나 접미사의 첫음절이 ‘ㄱ’인 경우, ‘ㄴ’을 첨가하여 발음하기 때문이다. 이는 음운이 첨가된 것이라 할 수 있다.
- ④ ‘금용’을 [금녕]으로 발음하는 것은, 합성어나 파생어에서 앞 단어나 접두사의 끝이 자음이고 뒤 단어나 접미사의 첫음절이 ‘ㄴ’인 경우, ‘ㄴ’을 첨가하여 발음하기 때문이다. 이는 음운이 첨가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참고로 표기대로 발음하여 [그똥]으로 발음하는 것도 인정된다. 그러나 ‘금용’은 19항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 ⑤ ‘칼날’을 [칼랄]로 발음하는 것은, ‘ㄴ’이 ‘ㄹ’로 교체되어 발음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A054

201708전북13

정답 ②

정답해설 ㉠의 ‘쁘들’은 명사 ‘쁘’와 조사 ‘을’을 연결 표기한 것이며, ㉡의 ‘바르매’ 역시 명사 ‘바름’과 조사 ‘애’가 결합한 것으로 명사의 형태를 밝혀 적지 않은 연결 표기이다. 한편, ㉢의 ‘사름이 니’는 명사 ‘사름’과 조사 ‘이니’를 구분하여 적은 분절 표기이며, ㉣의 ‘붉은’ 역시 어근 ‘붉-’과 어미 ‘-은’을 구분하여 적은 분절 표기이다.

A055

201708전북14

정답 ②

정답해설 ‘선무당’의 접두사 ‘선-’은 ‘서툰’, ‘충분치 않은’의 뜻을 더해주고, 관형사와 비슷하게 기능하기 때문에 부사와 비슷하게 기능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A056

201708전북15

정답 ①

정답해설 한정적 - 셋노란 : 노랗다(형) → 셋노랗다(형) 지배적 - 알맞은 : 맞다(동) → 알맞다(형)

오답피하기

- ② 한정적 - 맨손 : 손(명) → 맨손(명) 한정적 - 막일 : 일(명) → 막일(명)
- ③ 지배적 - 강마른 : 마르다(동) → 강마르다(형) 한정적 - 알맞은 : 굵다(형) → 알맞다(형)
- ④ 지배적 - 엇되어 : 되다(동) → 엇되다(형) 지배적 - 걸맞게 : 맞다(동) → 걸맞다(형)
- ⑤ 한정적 - 구슬픈 : 슬프다(형) → 구슬프다(형) 한정적 - 군소리 : 소리(명) → 군소리(명)

A057~A058

201709평가원11~12

출제의도 단어 형성 방식에 대한 수업 대화

지문해설 합성 명사의 형성 방식에 대해 선생님과 학생이 대화하고 있다. 선생님의 설명은 합성 명사를 구성하는 요소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명사와 명사가 결합하여 합성 명사가 형성된 경우, 용언의 활용형과 명사가 결합하여 합성 명사가 형성된 경우, 관형사와 명사가 결합하여 합성 명사가 된 경우를 각각 구체적인 예와 함께 제시하고 있다. 또한, 일반적인 원칙을 벗어나 합성 명사가 형성된 경우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있다.

주제 합성 명사의 형성 방식

A057

201709평가원11

정답 ②

출제의도 단어 형성의 원리

정답해설 ㄱ의 '사대'는 '사범'과 '대학'에서 첫 음절만 따서 형성된 경우로, 선생님의 마지막 설명 중 '인터넷'과 '강의'가 합쳐지면서 줄어든 말인 '인강'과 형성 방식이 동일하다. ㄴ의 '비빔냉면'은 용언의 활용형 '비빔'과 명사 '냉면'이 결합한 경우로, 선생님의 설명 중 '건넬목, 노립수, 섞어찌개'와 형성 방식이 동일하다.

오답피하기

- ㄱ의 '선생님'을 줄여 '쌤'을 만든 것은 앞말과 뒷말의 일부 음절을 딴 방식에 해당하지 않는다.
- ㄴ의 '개살구'는 접두사 '개-'와 명사 '살구'가 결합한 파생명사이기 때문에 제시된 수업 대화의 사례로 보기 어렵다.
- ㄷ의 '점잔'은 '점잖은 태도'를 뜻하는 명사인데, 형용사 '점잖다'로부터 만들어진 말임을 확인할 수 있을 뿐합성 명사가 아니기 때문에 제시된 수업 대화의 사례로 보기 어렵다.

A058

201709평가원12

정답 ①

출제의도 단어의 구조 파악

정답해설 '잘못'은 명사로도 쓰이고 부사로도 쓰이는 단어인데, ①에서는 합성 명사로 쓰이고 있다. 여기에서 앞말 '잘'과 뒷말 '못'은 모두 부사이므로 ①의 '잘못'은 부사와 부사가 결합하여 합성 명사가 형성된 경우로 ㉠의 예로 적절하다.

오답피하기

- ② '새것'은 관형사 '새'와 명사 '것'이 결합하여 합성 명사가 형성된 경우로 수업 대화 중 '새색시'와 같은 형성 방식의 예이다.
- ③ '요사이'는 관형사 '요'와 명사 '사이'가 결합하여 합성 명사가 형성된 경우로 수업 대화 중 '새색시'와 같은 형성 방식의 예이다.
- ④ '오늘날'은 명사 '오늘'과 명사 '날'이 결합하여 합성 명사가 형성된 경우로 수업 대화 중 '논밭, 불고기'와 같은 형성 방식의 예이다.
- ⑤ '갈림길'은 용언 '갈리다'의 활용형 '갈림'과 명사 '길'이 결합하

여 합성 명사가 형성된 경우로 수업 대화 중 '건넬목, 노립수, 섞어찌개'와 같은 형성 방식의 예이다.

A059

201709평가원13

정답 ③

출제의도 각 품사의 특징 파악

정답해설 '우리'는 대화 맥락에 따라 서로 다른 대상을 가리킬 수 있다. <보기>의 대화 중 ㉠는 대화 참여자 '수빈, 나경, 세은' 모두를 포함한다. 또한, ㉡의 '우리' 역시 머리핀을 사러 같이 갈 수 없는 '수빈'을 포함한 대화 참여자 세 명을 모두 가리킨다. 이는 전체적인 대화 맥락을 통해, 그리고 ㉢와 함께 쓰인 '셋이', ㉣와 함께 쓰인 '다 같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오답피하기

- ㉡의 '우리'가 가리키는 대상은 나경 혹은 나경을 포함한 형제자매로 볼 수 있다. 마찬가지로 ㉢의 '우리' 역시 수빈 혹은 수빈의 가족 구성원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나 ㉤와 달리, ㉠의 '우리'가 가리키는 대상에는 청자인 수빈이 포함되지 않는다.

A060

201709평가원14

정답 ⑤

출제의도 중세 국어에 대한 이해

정답해설 ㉠의 '보습고'에 쓰인 선어말 어미는 '-습-'인데, 이는 듣는 이, 즉 '세존(世尊)'을 높이기 위하여 쓰인 것이 아니라 문장의 객체, 즉 '여래(如來)'를 높이기 위해 쓰인 것이다. '보습고'의 현대어 풀이가 '뵈고'인 점을 통해 이를 알 수 있다.

오답피하기

- ① 중세 국어에서는 설명 의문문이나 판정 의문문이나에 따라 서로 다른 종결 어미가 쓰였다. ㉠는 의문사 '무슴'을 포함하는 설명 의문문이기 때문에 '-느뇨'가, ㉡는 판정 의문문이기 때문에 '-느녀'가 쓰인 것이다. ㉠와 ㉡의 현대어 풀이에서는 동일한 종결 어미가 나타남을 볼 때 중세 국어의 이러한 특징은 현대 국어와 대비된다.
- ② ㉠의 '마를'에서는 목적격 조사 '을'이, ㉢의 '벼를'에서는 목적격 조사 '을'이 확인된다. '을'과 '을'은 선행 체언의 모음이 양성 모음이나 음성 모음이나에 따라 달리 선택되었기 때문에 모음 조화에 따라 결정되었음을 알 수 있다. 현대어에서는 둘 모두 '을'로 실현됨을 볼 때 중세 국어의 이러한 특징은 현대 국어와 대비된다.
- ③ 중세 국어에서는 부르는 대상을 존칭하고자 할 때에 '世尊하, 大王하, 님금하' 등에서처럼 존칭의 호격 조사 '하'가 쓰였다. 호격 조사 '하'는 현대 국어에서는 쓰이지 않으며, ㉠에서 '世尊하'를 '세존이시여'로 풀이하였듯이 '(이)여'와 '-시-'가 결합한 형태인 '(이)시여'가 존칭의 호격 조사로 쓰이는 경우가 있다.
- ④ ㉢의 '보더시니'가 현대어로는 '보시더니'로 풀이됨을 볼 때 선어말 어미 '-시-'와 '-더-'의 결합 순서가 중세 국어와 현대 국어에서 차이가 있는 경우가 있음을 알 수 있다.

A061

201709평가원15

정답 ①

출제의도 시간 표현 파악

정답해설 ㉠의 예문에 쓰인 '-겠-'은 미래의 사건이 아닌 과거나 현재의 사건을 추측하는 데에 쓰이고 있다. ㉠의 앞 문장에서 '-았-'과 '-겠-'이 함께 쓰였다는 점, ㉠의 뒤 문장에서 '지금'이라는 부사와 '-겠-'이 함께 쓰였다는 점에서 미래의 사건을 추측하는 데에 쓰이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오답피하기

- ② ㉡의 '막차를 놓쳤으니 나는 집에 다 갔다.'에 쓰인 '-았-'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사건에 대한 확신을 나타내기 때문에 과거 시제를 나타내는 데 쓰였다고 보기 어렵다.
- ③ ㉢의 앞 문장에 쓰인 '-르'은 '올 것이다'와 함께 쓰였다는 점에서 미래의 사건을 나타내는 관형사형 어미로 볼 수 있지만 뒤 문장의 관형사형 어미 '-르'은 '왔다'의 '-았-'과 함께 쓰였다는 점에서 미래의 사건을 나타낸다고 보기 어렵다.
- ④ ㉣의 '진학한다고'에 쓰인 '-ㄴ-'은 '내년에'와 함께 쓰인다는 점에서 미래의 사건을 나타낸다.
- ⑤ ㉤의 앞 문장에 쓰인 형용사 '작다'는 '오늘'과 함께 쓰여 현재 시제를 나타내고 있다. 이때 시제 선어말 어미가 결합하지 않고 기본형 그대로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1710서울

A062 ④ A063 ① A064 ① A065 ⑤ A066 ⑤

A062

201710서울11

정답 ④

출제의도 주어의 형태와 기능을 이해한다.

정답해설 ㉠에서는 '신입'과 '장관'이 결합해 명사구를 이루고 여기에 조사가 붙어 주어가 이루어졌다. ㉡에서는 '새'와 '컴퓨터'가 결합해 명사구를 이루고 여기에 조사가 붙어 주어가 이루어졌다.

오답피하기

- ① 주어인 '나도'는 '대명사+조사'의 형태이고, 주어인 '바깥이'는 '명사+조사'의 형태이다.
- ② '도'와 '은'은 보조사로, 보조사가 붙은 형태로 주어가 나타나기도 한다.
- ③ ㉢에서 주어는 동작의 주체가 아니다.
- ⑤ '고물이'는 보어이다.

A063

201710서울12

정답 ①

출제의도 단어의 구조와 발음을 파악한다.

정답해설 '발은소리'는 용언 '발다'의 활용형인 '발은'과 명사인 '소리'가 결합하여 만들어진 단어이다. 이때 어미 '-은'이 형식 형태소이므로, '발은'은 연음하여 [바튼]으로 발음한다.

오답피하기

- ② 조사 '으로'는 형식 형태소이고, 어근 '알'은 실질 형태소이므로

[나트로], [나달]로 발음한다.

- ③ 어근 '어금니'는 실질 형태소이므로 [아버금니]로 발음한다.
- ④ 어근 '웃-'은 실질 형태소이고, 접사 '-음'은 형식 형태소이므로 [거두슴]으로 발음한다.
- ⑤ 조사 '을'은 형식 형태소이므로 [바튼]으로 발음한다.

A064

201710서울13

정답 ①

출제의도 이어진문장의 특징을 이해한다.

정답해설 (가)와 (나)에서 앞 절과 뒤 절의 사건들은 모두 과거에 일어났다. 그런데 (나)의 앞 절에는 과거 시제 선어말 어미 '-었-'이 사용된 반면에 (가)의 앞 절에는 어간 '떡-'에 바로 어미 '-다가'가 결합하여 시제 선어말 어미가 나타나고 있지 않다.

오답피하기

- ② (가)와 (다)의 앞 절에는 시제 선어말 어미가 없지만, 뒤 절의 시제가 과거이므로 과거로 해석된다.
- ③ (가)와 (라)의 앞 절에는 과거 시제 선어말 어미 '-았-/-'이 쓰이지 않았다.
- ④ (나)에서는 찌개를 끓이는 행위가 끝나고 찌개를 식히는 행위가 일어났으며, (다)에서는 종이를 접는 행위가 끝나고 종이를 주머니에 넣는 행위가 일어났다.
- ⑤ (라)에서는 두 사건의 인과 관계를 '-아서/-어서'가 나타내 주고 있지만, (다)에서는 두 사건이 인과 관계로 해석되지 않는다.

A065

201710서울14

정답 ⑤

출제의도 사동 표현의 특성을 이해한다.

정답해설 단형 사동, 즉 주동문의 동사나 형용사 어근에 사동 접미사가 붙은 사동사에 의한 사동은 직접 사동과 간접 사동의 두 가지 의미를 모두 표현할 수 있지만 장형 사동, 즉 '-게 하다'에 의한 사동은 간접 사동의 해석만을 허용한다. <보기>에서 ㉠은 단형 사동이고 ㉡은 장형 사동이므로 ㉠은 ㉡과 달리 직접 사동과 간접 사동의 의미 모두로 해석될 수 있다.

오답피하기

- ①, ② ㉠을 '아이들이'를 주어로 삼는 단형 사동문으로 바꾸면 '아이들이 얼음 위에서 팽이를 돌린다.'가 된다. ㉠의 주어인 '팽이가'는 목적어인 '팽이를'로 바뀌었으며 서술어의 자릿수가 한 자리에서 두 자리로 바뀌었음을 알 수 있다.
- ③, ④ ㉡을 '선생님께서'를 주어로 삼는 단형 사동문으로 바꾸면 '선생님께서 지원이에게 그 일을 맡기셨다.'가 된다. ㉡의 주어인 '지원이가'는 부사어인 '지원이에게'로 바뀌었으며 서술어의 자릿수가 두 자리에서 세 자리로 바뀌었음을 알 수 있다.

A066

201710서울15

정답 ⑤

출제의도 15세기 국어의 사동 표현과 현대 국어의 사동 표현의 특징을 비교하여 이해한다.

정답해설 어근 형태가 '뱃-'(15세기)과 '벗-'(현대)으로 서로 다름에도 불구하고 두 어근에 결합하는 사동 접미사가 '-기-'로 동일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오답피하기

- ① '얼-'이라는 동일한 어근에 대해 15세기 국어에서는 사동 접미사로 '-우-'가 결합되고 현대 국어에서는 '-리-'가 결합됨을 알 수 있다.
- ② ㉠에서 '일케'는 현대 국어의 '일게'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은 현대 국어의 '-게 하다'에 해당하는 15세기 국어의 '-게 하다'가 쓰인 모습을 보여 준다고 말할 수 있다.
- ③ 어근 '얹-'과 사동 접미사 '-히-'의 결합형에 대한 표기가 15세기 국어에서는 소리 나는 대로 적은 '안치-'인 반면 현대 국어에서는 '얹히-'라는 점을 알 수 있다.
- ④ 현대 국어에서는 쓰이지 않는 사동 접미사 '-으-'가 15세기 국어에서 쓰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201710전북
A067 ② A068 ② A069 ③ A070 ③ A071 ②

A067

201710전북11

정답 ②

출제의도 반의 관계 이해

정답해설

- ㉠과 ㉡는 느낌이나 마음의 상태를 나타내는 단어이지만 ㉠은 부정성을, ㉡는 긍정성을 나타낸다는 점에서 반의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 ㉢와 ㉣는 시간성을 지니는 단어이지만 ㉢는 시간적인 간격이 얼마쯤 있음을 나타내는 반면 ㉣는 시간적인 연속성을 나타낸다. 즉 시간의 연속성 측면에서만 의미 성분이 다르므로 반의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없다.
- ㉤는 부모이면서 어른이고 기혼인 남성을 의미하지만, ㉥는 여성을 의미하며 부모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또한 어른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으며 기혼일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다. 이처럼, ㉤와 ㉥는 둘 이상의 의미 성분이 같을 수도,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반의 관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 ㉦는 공간적 범위를 나타내는 명사와 함께 쓰여 일정한 범위의 안을 의미하고, ㉧는 공간성을 지니면서 어떤 물체나 공간의 둘러싸인 가에서 가운데로 향한 부분을 의미한다. 따라서 ㉦와 ㉧는 반의 관계가 아닌 유의 관계라 할 수 있다.

A068

201710전북12

정답 ②

출제의도 합성어의 의미 형성 양상 이해

정답해설 '좌우 5'는 '좌'와 '우'가 지닌 본래의 의미가 아니라 그 의미에서 확장된 융합 의미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좌우 4'는 '좌'와 '우'가 지닌 각각의 대조적인 의미가 반영되어 있으므로 두 단어가 융합하여 새로운 뜻을 나타낸 것이 아니라 대조되는 두 의미가 다양하게 확장을 일으켜서 결합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오답피하기

- ① '좌우 1'은 '좌'의 의미인 '왼쪽'과 '우'의 의미인 '오른쪽'을 단순히 합한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
- ② 2문단에서 두 단어가 지닌 의미를 단순히 합한 의미를 나타낼 때, 두 단어는 반의 관계이기 때문에 어느 한쪽이 중심 의미가 되기는 어렵다고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상하 1'은 '상'과 '하'가 반의 관계이고 두 단어의 의미를 단순히 합한 의미를 나타내고 있으므로, 어느 한쪽이 중심 의미가 된다고 할 수 없다.
- ④ '상하 3, 4, 5'는 '상'과 '하'가 지닌 본래의 의미를 단순히 합친 의미라기보다는 그에서 확장된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대조되는 두 가지 의미가 다양하게 확장을 일으켜서 결합한 것이라는 진술은 적절하다.
- ⑤ '밤낮'은 '밤과 낮을 아울러 이르는 말'일 때에는 품사가 명사이나, 확장되어 '밤과 낮을 가리지 않고 늘'이라는 융합 의미로 쓰일 때에는 품사가 부사이다. 따라서 의미가 확장되어 융합 의미로 쓰일 때 품사가 변하는 예라 할 수 있다.

A069

201710전북13

정답 ③

출제의도 동작상의 이해

정답해설 '나는 말을 타고 있다.'는 말을 타는 중이라는 진행상과, 말을 탄 상태가 지속되는 완료상으로 해석 가능하여 중의성을 띤다.

오답피하기

- ① '-어 있다'는 완료상을 표현하는 방법으로, 꽃이 핀 상태가 지속됨을 나타낸다.
- ② '-어 버렸다'는 완료상을 표현하는 방법으로, 밥을 먹는 동작이 이미 완료되었음을 나타낸다.
- ④ '-고 있다'는 동작의 진행상을 표현하는 방법으로, 숙제를 하는 동작이 진행되고 있음을 나타낸다.
- ⑤ '할머니는 콩나물을 사면서 값을 흥정했다.'에서는 '-면서'에 의해 콩나물을 사는 동작이 진행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A070

201710전북14

정답 ③

출제의도 중세 국어 의문문의 이해

정답해설 '이 어떤 사람이냐'는 의문사 '어떤'이 등장하는 설명 의문문에 해당하고, 체언 '사람'으로 문장이 마무리되어야 하므로 ㉠은 의문 조사 '고'가 쓰여 '사름고'가 되어야 한다. '너는 어떻게 어느냐'는 '어떻게'라는 의문사가 쓰인 설명 의문문에 해당하지만, 주어가 '너'라는 2인칭 주어에 해당하므로 ㉡는 '-나다'가 사용된 '안다'가 적절하다. '이 딸이 너희 중이냐'는 '예-아니오'를 묻는 판정 의문문에 해당하고, 체언 '중'으로 문장이 마무리되어야 하므로 ㉢는 의문 조사 '가'가 쓰여 '중가'가 되어야 한다.

A071

201710전북15

정답 ②

출제의도 음운 변동의 이해

정답해설 ㉠은 ‘빌’, ‘살’의 받침 ‘ㄹ’이 탈락하면서 음운의 개수가 하나 줄었으며, ㉡은 합성어와 파생어에서 앞 단어나 접두사의 끝이 자음이고 뒤 단어나 접미사의 첫음절이 ‘이, 야, 여, 요, 유’인 경우에 ‘ㄴ’ 음이 첨가되는 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음운의 개수가 하나 늘었다. 따라서 ㉠과 ㉡은 모두 음운 변동의 결과로 음운의 개수가 변했음을 알 수 있다.

오답피하기

- ① ㉠은 ‘ㅎ’과 ‘ㄱ’이 합쳐져 ‘ㅋ’, ‘ㅎ’과 ‘ㅅ’이 합쳐져 ‘ㅆ’으로 축약되는 현상이 나타나지만, ㉡은 ‘ㄷ, ㅌ’이 ‘ㅣ’ 모음과 만나 ‘ㅌ, ㅆ’으로 교체되는 현상이 나타난 것이다.
- ③ ㉡의 ‘짓는’은 치조음인 ‘ㅅ’이 비음인 ‘ㄴ’과 만나 비음인 ‘ㄴ’으로, ‘항로’는 유음인 ‘ㄹ’이 비음인 ‘ㅇ’과 만나 비음인 ‘ㄴ’으로 바뀌는 동화가 일어났으나, ㉠은 동화가 일어난 것이 아니라 음운이 탈락한 것이다.
- ④ ㉡은 합성어와 파생어에서 앞 단어나 접두사의 끝이 자음이고 뒤 단어나 접미사의 첫음절이 ‘이, 야, 여, 요, 유’인 경우에 ‘ㄴ’ 음이 첨가되는 현상이 나타난 것이나, ㉠은 ‘ㄴ’이 첨가된 것이 아니라 교체가 나타난 것이다.
- ⑤ ㉡은 뒤의 모음 ‘ㅣ’의 영향으로 앞 자음 ‘ㄷ, ㅌ’이 ‘ㅌ, ㅆ’으로 바뀌는 역행 동화가 일어났으며, ㉠에서 ‘짓는’은 치조음인 ‘ㅅ’이 비음인 뒤의 ‘ㄴ’의 영향으로 같은 음운으로 바뀌는 역행 동화가 일어났으나, ‘항로’는 유음인 ‘ㄹ’이 비음인 앞의 음운인 비음 ‘ㅇ’의 영향으로 비음인 ‘ㄴ’으로 바뀌는 순행 동화가 일어났다.

201711수능

A072 ④
A073 ①
A074 ③
A075 ②
A076 ①

A072~A073

201711수능11~12

출제의도 단어 형성 방식과 국어의 변천

지문해설 이 글에서는 먼저 합성어와 파생어의 형성 원리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그런데 파생어에 쓰이는 접미사는 간혹 어미나 조사와 혼동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둘 사이의 문법적 차이에 대해 기술하고 있다. 이에 더해, ‘용언 어간+어미’, ‘체언+조사’의 형태가 시간이 흐름에 따라 하나의 단어로 굳어진 경우에 대해서도 다루고 있다. 특히, 마지막 문단에서는 미지칭 인칭 대명사에 보조사 ‘고/구’가 결합한 형태가 시간이 지나면서 새로운 인칭 대명사로 굳어진 사례에 대해 상술한다.

주제 단어의 형성 방식과 국어의 변천

A072

201711수능11

정답 ④

출제의도 단어의 구조 파악

정답해설 ‘깨뜨리다, 깨뜨리고, 깨뜨리니, 깨뜨리지만’ 등으로 활용을 하는 양상에 비추어 볼 때 용언 ‘깨뜨리는데’의 어간은 ‘깨뜨리-’이고, 어미는 ‘-는데’이다.

오답피하기

- ① ‘나이는 많지 아니 하나 기개와 체질이 굳센 사람’의 뜻을 지니

는 ‘아기장수’는 어근 ‘아기’와 어근 ‘장수’가 결합하여 형성된 합성어이다.

- ② ‘맨손’은 ‘다른 것이 없는’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 ‘맨-’과 어근 ‘손’이 결합하여 형성된 파생어이다.
- ③ ‘쌓인’의 어간은 ‘쌓이-’인데, 이때 ‘쌓-’이 어근이며 ‘-이-’는 파동의 의미를 더하는 접미사이다.
- ⑤ ‘모습이’에서는 제언 ‘모습’과 조사 ‘이’가 결합한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

A073

201711수능12

정답 ①

출제의도 국어의 변천

정답해설 [A]의 설명을 토대로 <보기>의 탐구 결과를 확인하면 미지칭의 인칭 대명사 ‘누’에 의문문을 만드는 보조사 ‘고/구’가 결합한 형태인 ‘누고, 누구’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하나의 형태로 굳어졌으며, 현대 국어에서는 ‘누구’만 사용됨을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가)의 중세 국어에서 미지칭의 인칭 대명사 형태를 ‘누, 누고, 누구’로 분석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 미지칭의 인칭 대명사는 ‘누’이며, ‘누고, 누구’는 ‘누’에 보조사 ‘고/구’가 결합한 형태이다.

오답피하기

- ② (나)의 근대 국어에서는 ‘누고+고, 누구+고’를 확인할 수 있는데 ‘누고, 누구’가 미지칭의 인칭 대명사로 나타난다.
- ③ 현대 국어인 (다)에서는 (나)에서 쓰인 ‘누고’는 나타나지 않으며 ‘누구’만 쓰임을 확인할 수 있다.
- ④ (가)의 ‘누+고/구’가 (나)의 ‘누고/누구+고’로 변화하였음을 볼 때 체언과 보조사가 결합한 형태인 ‘누+고/구’가 새로운 단어 ‘누고/누구’가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⑤ (나)의 근대 국어에서는 ‘누고’와 ‘누구’가 모두 나타나지만 (다)의 현대 국어에서는 ‘누구’만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다.

A074

201711수능13

정답 ③

출제의도 문장 성분의 기능 파악

정답해설 ③에 쓰인 부사어 ‘너무’는 ‘쌌다’를 수식하는 것이 아니라 관형어 ‘헌’을 수식하고 있다.

오답피하기

- ① ‘주어-서술어’의 구성으로 이루어진 절인 ‘눈이 부시게’가 부사어로 쓰여 ‘푸른’을 수식하고 있다.
- ② 명사 ‘하늘’에 부사격 조사 ‘에서’가 결합한 ‘하늘에서’와 부사 ‘평평’이 각각 부사어로 쓰여 서술어를 수식하고 있다.
- ④ ㉠의 ‘엄마와’와 ㉡의 ‘취미로’는 모두 서술어를 수식하는 부사어인데 후자와 달리 전자는 문장의 구성에 반드시 필요한 필수적 부사어이다.
- ⑤ 일반적으로 보어는 ‘되다’, ‘아니다’앞에 보격 조사 ‘이/가’를 취하여(생략이나 보조사 실현 가능) 나타나는 문장 성분을 의미하기 때문에 ㉡의 ‘재가’는 보어이며, ㉠은 명사에 부사격 조사 ‘로’가 결합한 부사어이다. 그런데 둘 모두 서술어 ‘되었다’가 반드시 필요로 하는 성분이라는 점에서는 공통적이다.

A075

201711수능14

정답 ②

출제의도 음운 변동의 이해

정답해설 ㉠ '흙일'은 '흙일 → 흑일 → 흑닐 → [홍닐]'의 음운 변동이 일어나는데 자음군 단순화(탈락), ㄴ 첨가(첨가), 비음화(교체)를 확인할 수 있다. ㉡ '달는'은 '달는 → 달는 → [달른]'의 음운 변동이 일어나는데 자음군 단순화(탈락)와 유음화(교체)를 확인할 수 있다. ㉢ '발야구'는 '발야구 → 발냐구 → [발랴구]'의 음운 변동이 일어나는데 ㄴ 첨가(첨가)와 유음화(교체)를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에서 공통적으로 일어난 음운 변동은 '교체'임을 알 수 있다. '첨가'는 ㉠과 ㉣에서만 일어날 뿐 ㉡에서는 일어나지 않는다.

오답피하기

- ① ㉠에서는 3회의 음운 변동이, ㉡과 ㉣에서는 2회의 음운 변동이 일어난다.
- ③ '교체'는 음운 변동의 결과에 따른 음운의 개수 변화에 영향을 주지 않음을 고려하면, ㉠에서는 자음군 단순화(탈락)와 ㄴ 첨가(첨가)가 모두 일어났기 때문에 음운 변동의 결과에 따른 음운의 개수에 변화가 없다. ㉡에서는 자음군 단순화(탈락)가 일어났기 때문에 하나가 줄었고, ㉣에서는 ㄴ 첨가(첨가)가 일어났기 때문에 하나가 늘었다.
- ④ ㉡은 자음군 단순화(탈락), 유음화(교체)가, ㉣은 ㄴ 첨가(첨가)와 유음화(교체)가 일어났기 때문에 ㉡과 ㉣에서 일어난 음운 변동의 횟수는 같다.
- ⑤ ㉠과 ㉣에서 첨가된 음운은 둘 다 'ㄴ'이다.

A076

201711수능15

정답 ①

출제의도 국어사전의 정보 파악

정답해설 ㉠에서는 「10」의 뜻풀이가 새롭게 추가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렇지만 중심적 의미에 대한 뜻풀이인 「1」은 개정 전과 개정 후에 변화가 없다.

오답피하기

- ② 국어사전에서 「[]」는 표준 발음을 나타내는 기호로 쓰이는데, 개정 전에는 [김:밥]만 인정하였다가 개정 후에는 [김:밥]과 [김:뺌] 모두를 표준 발음으로 인정하는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
- ③ '냄새'에 대한 뜻풀이는 개정 전후가 동일하지만 '내음'은 개정 전에는 경상도 방언으로 처리하였던 데 반해, 개정 후에는 표준어 표제어로 등재하고 새로운 뜻풀이를 제시하는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
- ④ '태양계'의 개정 전후 뜻풀이에서는 9개의 행성 → 8개의 행성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명왕성은 행성이 아니라는 과학적 정보를 새롭게 반영한 결과이다.
- ⑤ ㉡에서는 '스마트폰'을 표제어로 추가한 양상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이전에는 없던 문물이 새롭게 등장함에 따라 이를 지칭하는 표현을 표제어로 올린 것이다.

A077

201803서울11

정답 ③

출제의도 음운 변동의 조건을 파악한다.

정답해설 비음화, 자음 축약(거센소리되기)과 같은 현상은 음운과 관련된 조건만으로 규칙성을 파악할 수 있다. 파열음인 예사소리 뒤에서 일어나는 된소리되기도 마찬가지로이다. 그런데 용언 어간 말 비음 뒤에서 일어나는 된소리되기는 용언의 어간과 어미라는 형태소와 관련된 조건까지 필요하다. <보기>의 ㉡는 발음될 때 파열음인 예사소리 뒤에서 일어나는 된소리되기가 일어나고 ㉢는 자음 축약이 일어난다. 이 두 현상은 모두 음운과 관련된 조건만 필요한 음운 변동이다.

오답피하기

- ① 장애음과 비음이 이어지거나 예사소리인 파열음 뒤에 예사소리가 이어질 때에는 자연스럽게 발음하기가 어려워 예외 없이 음운 변동이 일어난다.
- ② 국어에서 규칙적으로 일어나는 음운 변동은 표준 발음에 반영한다.
- ④ 자음 축약이 일어날 때에는 형태소와 관련된 조건이 필요 없다.
- ⑤ '띄기-'는 어간이며, 예사소리인 파열음 뒤에서 된소리되기가 일어난다.

A078

201803서울12

정답 ④

출제의도 한글 맞춤법을 이해한다.

정답해설 예사소리인 파열음 뒤에서 일어나는 된소리되기는 예외 없이 일어나는 음운 변동이다. 따라서 '국수'로 적더라도 발음은 [국쑤]로 하게 된다. 이 점을 고려하여 한글 맞춤법에서는 '국수, 몫시'와 같은 단어를 제5항에 '다만' 규정을 두어 발음에서 나는 된소리를 예사소리로 적게 하고 있다.

오답피하기

- ① 두 모음 사이라는 음운과 관련된 조건만으로는 된소리되기를 설명할 수 없다. 그래서 한글 맞춤법 제5항에는 뚜렷한 까닭 없이 된소리가 일어나는 조건으로 '두 모음 사이'를 제시하고 있다.
- ② 예사소리인 파열음 뒤에서 일어나는 된소리되기는 규칙적인 현상이다.
- ③ '딱딱'으로 적어도 발음은 예외 없이 [딱딱]이 된다. 그러나 한글 맞춤법에서는 제5항의 '다만' 규정과 제13항을 두어 '딱딱'으로 적게 하고 있다.
- ⑤ '잔뜩'은 부사이며, 한글맞춤법 제5항에 'ㄴ, ㄷ, ㅁ, ㅇ' 받침 뒤에서 뚜렷한 까닭 없이 된소리가 나는 단어로 제시되어 있다.

A079

201803서울13

정답 ④

출제의도 단어의 형성 방법을 파악한다.

정답해설 통사적 합성어는 단어 형성 방식이 일반적인 문장 형성 방식과 부합하는 합성어이며, 비통사적 합성어는 단어 형성 방식이 일반적인 문장 형성 방식과 부합하지 않는다. ㉠에서 '굽-', '밀-'은 동사 어근, '도구'는 명사 어근이다. 동사 어근이 어미와 결합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고 명사 어근과 직접 결합하는 것은 일반적인 문장 형성 방식과 부합하지 않는다. 따라서 ㉠에서 제시된 단어들은 비통사적 합성어이므로, 이들을 파생어로 진술한 ④는 적절하지 않다.

오답피하기

- ① ㉠에서 '오이', '깎질', '칼'은 명사 어근이다. 명사가 명사를 수식하는 것은 일반적인 문장 형성 방식과 부합한다.
- ② ㉡에서 '값작값작', '사각사각'은 부사 어근, '칼'은 명사 어근이다. 부사가 명사를 수식하는 것은 일반적인 문장 형성 방식과 부합하지 않는다.
- ③ ㉢에서 '까-', '깎-'은 동사 어근, '-개'는 접사이다.
- ⑤ ㉤에서 '박박', '쓱쓱'은 부사 어근, '-이'는 접사이다.

A080

201803서울14

정답 ①

출제의도 문장의 짜임을 파악한다.

정답해설 ㉠에서 '내 친구의 것이다'는 '내 친구의 것'이라는 구에 '이다'라는 서술격 조사가 붙어 주어인 '자전거는'을 서술하고 있으나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나타나지 않으므로 안긴문장이 아니다. ㉢에서 '손가락이 길다'는 '손가락이'라는 주어와 '길다'라는 서술어를 갖추고 있으면서 문장 전체의 주어인 '영수는'을 서술하고 있으므로 서술어의 기능을 하는 안긴문장에 해당한다.

오답피하기

- ② ㉡의 '내가 빌린'은 주어와 서술어를 갖춘 문장으로 용언의 어간에 관형사형 어미를 붙여 체언인 '자전거'를 수식하는 안긴문장을 만든 것이다. ㉢의 '마을에 사는'은 주어인 '사람들이'가 생략되고 관형사절로 쓰여서 체언인 '사람들'을 수식하는 안긴문장이다.
- ③ ㉣의 '공연이 시작되기'는 안긴 문장으로, 이 문장에서 부사어는 나타나지 않는다. ㉤의 '피아노를 잘 치는'은 안긴 문장으로, 이 문장에서 '잘'은 부사어에 해당하며, '손가락이 누구보다 길다'는 안긴 문장으로, 이 문장에서 '누구보다'는 부사어에 해당한다.
- ④ ㉥의 '공연이 시작되기'는 명사인 '전'을 꾸며 주는 관형어의 기능을 하는 안긴문장이다. ㉢의 '파수꾼이 마을에 사는 사람들을 속였음'은 명사절로 안긴 문장으로 조사 '이'와 결합하여 문장에서 주어의 기능을 하고 있다.
- ⑤ ㉤의 '피아노를 누구보다 잘 치는'은 주어인 '영수가'가 생략되어 있는 안긴문장이다. ㉢의 '마을에 사는'은 주어인 '사람들이'가 생략되어 있는 안긴문장이다.

A081

201803서울15

정답 ④

출제의도 중세 국어의 조사에 대해 이해한다.

정답해설 '사스미'는 체언인 '등'을 꾸며 주는 관형어로, 체언인 '사슴'에 관형격 조사 '이'를 붙인 것이다. '도즈기'는 체언인 '입'을 꾸며 주는 관형어로, 체언인 '도족'에 관형격 조사 '이'를 붙인 것이다.

오답피하기

- ① '드리'는 '들'에 주격 조사 '이'를 붙인 것이다. '비취요미'는 '비취움'에 '이'를 붙인 것으로 이때 '이'는 다른 대상과 비교하는 의미를 나타내는 부사격 조사이다.
- ② '네'는 '너'에 주격 조사 '이'를 붙인 것이고, '부테'는 '부터'에 보격 조사 '이'를 붙인 것이다.
- ③ '부텃'은 '뭍'을 꾸며 주는 관형어로 '부터'에 관형격 조사 '스'를 붙인 것이다. '가짓'은 '상(相)'을 꾸며 주는 관형어로 '가지'에 관형격 조사 '스'를 붙인 것이다.
- ⑤ '모뎨'는 '뭍'에 목적격 조사 '을'을 붙인 것이고, '부터를'은 '부터'에 목적격 조사 '를'을 붙인 것으로, 형태가 다른 목적격 조사를 사용하고 있다.

201804경기

A082 ④ A083 ③ A084 ④ A085 ⑤ A086 ④

A082

201804경기11

정답 ④

출제의도 음운 변동의 이해

정답해설 ㉠에서 'ㅈ'이 'ㄷ'으로 바뀐 후 다시 'ㄴ'으로 바뀌었으므로 음운 교체가 2회 일어났고, ㉢에서 'ㅈ'이 'ㄷ'으로 바뀐 후 다시 'ㄴ'으로 바뀌었으므로 음운의 교체가 2회 일어났다. 따라서 음운 교체 횟수가 같다는 진술은 적절하다.

오답피하기

- ① ㉢에서는 'ㄴ'이 첨가되었으나 ㉠에서는 음운 첨가가 나타나지 않았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 ② ㉣의 'ㄱ'이 'ㄱ'으로 발음되는 것에서는 음운의 탈락이 일어났지만, ㉢에서는 음운 탈락이 나타나지 않았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 ③ ㉠에서는 'ㅈ'이 '이' 앞에서 'ㅊ'으로 교체되어 나타나고, ㉢에서는 'ㅈ'이 'ㅎ'과 만나 'ㅊ'으로 합쳐지는 축약이 나타났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 ⑤ ㉣에서 'ㄱ'이 'ㄱ'으로 발음될 때는 탈락이 1회 일어났고, ㉢에서 'ㅈ'이 'ㅈ'으로 발음될 때에는 교체가 1회 일어났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A083

201804경기12

정답 ③

출제의도 복합어의 이해

정답해설 '겹겹이'는 어근 '겹'과 '겹'이 결합한 데 접미사 '-이'가 결합하였으며, 명사에서 부사로 품사가 바뀌었으므로 적절하다.

오답피하기

- ① '군것질'은 어근 '것'에 접두사 '군-'이 결합된 파생어에 접미사 '-질'이 결합된 것이며 품사가 변하지 않았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 ② '바느질'은 어근 '바늘'에 접미사 '-질'이 결합된 것이며 품사가

변하지 않았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 ④ '다듬이'는 '다듬다'라는 동사에서 어근에 해당하는 '다듬-'에 접미사 '-이'가 결합되어 동사에서 명사로 품사가 바뀐 것으로 적절하지 않다.
- ⑤ '헛웃음'은 '웃다'라는 동사의 어근에 해당하는 '웃-'에 접미사 '-음'이 결합되어 동사에서 명사로 품사가 바뀐 후 접두사 '헛-'이 결합되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A084

201804경기13

정답 ④

출제의도 사전 활용하기

정답해설 문맥상 '수밖에'의 '밖에'는 <보기 1>의 2의 의미로 쓰인 것으로 조사이기 때문에 체언과 붙여 써야 하므로 적절하지 않다.

오답피하기

- ① 출입문을 넘어선 복도 쪽을 지칭하는 것이므로 적절하다.
- ② 문맥상 '머칠 밖에 남지 않았다'는 '머칠 이외에는 시간이 남지 않았다'라는 의미이므로 조사인 '밖에'는 붙여 쓰는 것이 적절하다.
- ③ '뜻밖에도 아쉬움이 더 크다'라는 것은 자신의 예상과는 달리 아쉬움이 더 크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뜻밖에도'는 유의어인 '의외로'로 바꿔 쓸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 ⑤ '기대 밖의 선물'에 쓰인 '밖'은 '일정한 한도나 범위에 들지 않는 나머지 다른 부분이나 일.'의 의미로 사용되었으므로 적절하다.

A085~A086

201804경기14~15

출전 고영근, 「표준중세국어문법론」

A085

201804경기14

정답 ⑤

출제의도 안은문장과 안긴문장 이해하기

정답해설 ㄴ의 '소리도 없이'라는 안긴문장은 '그가 사라졌음'이라는 명사절에 안겨 있다. 그러나 ㄷ의 경우 '운동장을 달리는'이라는 안긴문장과 '발밑을 조심하'라는 안긴문장이 있으나 각각의 안긴문장 안에 또 다른 문장이 안겨 있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오답피하기

- ① ㄱ은 '아이가 먹기'라는 명사절에 '에'라는 부사격 조사가 붙어 부사어로 기능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 ② ㄴ은 '소리도 없이'라는 부사절이 뒤에 오는 용언을 수식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 ③ '발밑을 조심하라'고'에서 '고'는 간접 인용을 나타내는 조사이므로 적절하다.
- ④ ㄱ의 '잘 다져진'과 ㄷ의 '운동장을 달리는'은 모두 뒤에 오는 체언을 수식하는 관형절로, 주어가 생략되어 있으므로 적절하다.

A086

201804경기15

정답 ④

출제의도 중세 국어의 문장의 짜임 이해하기

정답해설 (가)의 '맛술히 멀면'은 현대어 풀이를 바탕으로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임을 짐작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오답피하기

- ① (가)의 '乞食ᄒᆞ다'가 현대어 풀이의 '걸식하기'에 해당하는 것을 볼 때, '-디'에 기대어 명사절이 되었으므로 적절하다.
- ② (나)의 '이 東山은 남기 도ᄒᆞᆫ'는 '이 동산은 나무가 좋으므로'라는 현대어 풀이로 볼 때 '남기 도ᄒᆞᆫ'가 '이 東山'의 서술어로서 기능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 ③ (다)의 '꽃 도쿄'는 '꽃이 좋고'라는 현대어 풀이로 볼 때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임을 짐작할 수 있으며 '동다'의 어간 '동-'에 '-고'가 붙어 있으므로 적절하다.
- ⑤ (나)의 '도ᄒᆞᆫ'의 현대어 풀이 '좋으므로'와 (다)의 '뭇씨'의 현대어 풀이 '흔들리므로'를 통해 현대국어와 형태는 다르지만 문장을 종속적으로 연결해주는 '-ᄒᆞᆫ'이 사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201805전북

A088 ④ A089 ⑤ A090 ③ A091 ③ A087 ①

A088

201805전북12

정답 ④

출제의도 음운 변동의 이해

정답해설 ㉠의 '국물'은 음절 끝에 오는 자음인 'ㄱ'이 뒤에 오는 자음 'ㄹ'의 영향을 받아 'ㅇ'으로 바뀌어 소리가 나기 때문에 [궁물]로 발음된다. 하지만 ㉡의 '홀이불'의 경우 음절 끝에 오는 자음인 'ㅌ'이 대표음인 'ㄷ'으로 바뀐 후, 뒤에 오는 자음 'ㄴ'의 영향을 받아 'ㄴ'으로 바뀌어 소리가 나기 때문에 [혼니불]로 발음된다. 따라서 ㉡은 뒤에 오는 모음의 영향을 받아 동화가 일어난 경우가 아니라 자음의 영향을 받아 동화가 일어난 경우이다.

오답피하기

- ① ㉠의 '여담이'는 '여담다'의 어간인 '여담-'과 명사 파생 접사인 '-이'가 결합하여 [여다지]로 발음된다. 이는 'ㄷ'이 단모음 'ㅣ'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와 만나 'ㅈ'으로 소리가 바뀐 경우이므로, 구개음화에 해당한다.
- ② ㉡의 '달힌'은 '달다'의 어간 '달-'에 접미사 '-히-'가 결합하여 형성된 '달히다'의 활용형으로, 'ㄷ'이 접미사 '-히-'와 만나 [치]로 발음되는 경우이므로 구개음화에 해당한다.
- ③ ㉢의 '붙어'는 '붙이다'의 어간 '붙이-'와 연결 어미 '-어'가 결합한 형태로, 'ㅌ'이 이중 모음 'ㅑ'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와 만나 'ㅈ'으로 소리가 바뀐 경우이므로, 구개음화에 해당한다.
- ⑤ ㉣의 '날로'는 음절 끝에 오는 'ㄴ'이 뒤에 오는 'ㄹ'의 영향을 받아 'ㄹ'로 바뀌어 소리가 나기 때문에 [날로]로 발음되며, ㉤의 '업무'는 음절 끝에 오는 자음 'ㅂ'이 뒤에 오는 자음인 'ㄹ'의 영향을 받아 'ㄹ'으로 바뀌어 소리가 나기 때문에 [업무]로 발음된다.

A089

201805전북13

정답 ⑤

출제의도 국어사 자료의 이해

정답해설 (가)의 ‘꽃’에 쓰인 ‘ㅈ’과 (나)의 ‘꽃’에 쓰인 ‘ㅊ’은 모두 윗잇몸과 혀끝이 닿아서 나는 소리인 치음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두 자음의 조음 위치는 같다.

오답피하기

- ① 중세 국어에서는 ‘ㄷ’과 ‘ㅈ’이 모두 윗잇몸과 혀끝이 닿아서 나는 소리인 치음에 해당하므로, ‘도교’와 ‘퍼디’의 ‘ㄷ’은 모두 ‘제’의 ‘ㅈ’과 조음 위치가 같았음을 알 수 있다.
- ② ‘등꺽’과 ‘뭉훅’에서는 각각 현대 국어에서 사용하지 않는 자음인 ‘ㅎ’과 ‘ㅎ’이 사용되었는데, 이를 통해 중세 국어에는 현대 국어에서 사라진 음운이 존재하였음을 알 수 있다.
- ③ ‘뽳’은 단어의 첫머리에 서로 다른 두 자음인 ‘ㅂ’과 ‘ㄷ’이 함께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현대 국어에서 사용하지 않는 중세 국어의 특징에 해당한다.
- ④ 중세 국어에서 ‘ㅈ, ㅊ’은 윗잇몸과 혀끝이 닿아서 나는 소리인 치음이었지만, 근대 국어에서는 선입천장과 혀바닥 사이에서 공기의 흐름이 방해받아서 나는 경구개음으로 바뀌었다. 따라서 ‘쪼호로’의 ‘ㅈ’과 ‘빗최던’의 ‘ㅊ’은 경구개음에 해당한다.

A090

201805전북14

정답 ③

출제의도 사전 활용 활동의 적절성 판단

정답해설 ‘팬들로부터 편지를 받았다.’는 ㉠의 용례가 아니라 ‘반다01 [1] 「1」의 용례로 적절하다. ㉠의 용례로는 ‘막내로 집에서 귀염을 받다.’, ‘다른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다.’ 등을 들 수 있다.

오답피하기

- ① ‘반다 01’과 ‘반다 02’는 서로 다른 표제어로서 뜻은 다르지만 소리는 같다. 즉 동음이의어의 관계라 할 수 있다.
- ② ‘반다 02’의 예문 ‘소가 엉덩이를 받아서 다쳤다.’를 피동형으로 바꾸면 ‘소에게 엉덩이를 받혀서 다쳤다.’가 된다. 즉 ‘반다 02’의 피동사는 ‘받히다’임을 알 수 있다.
- ④ ㉠의 예문 ‘심사 위원들로부터 최고 등급을 받다.’를 통해 점수를 받았다는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 따라서 ㉠에는 ‘점수나 학위 따위를 따다’라는 내용이 들어가기에 적절하다.
- ⑤ 문형 정보와 예문을 통해 봤을 때 ㉠은 목적어와 부사어를 필요로 하는 세 자리 서술어인 반면 ㉡은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 두 자리 서술어임을 알 수 있다.

A091

201805전북15

정답 ③

출제의도 한글 맞춤법의 이해와 적용

정답해설 ‘무명 만큼’의 ‘만큼’은 명사적 기능을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체언 뒤에 쓰이고 있는 조사이므로 제41항을 따라 앞말인 ‘무명’과 붙여 ‘무명만큼’으로 써야 한다.

오답피하기

- ① ‘뿐’이 체언 뒤에서 조사로 쓰였으므로 ‘실력뿐’으로 쓰는 것이 적절하다.
- ② 조사는 어미 뒤에 붙는 경우에도 붙여 쓰므로 ‘저렇게까지’로 쓰는 것이 적절하다.
- ④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는 수 관형사와 띄어 써야하므로 ‘두 권’으로 쓰는 것이 적절하다.
- ⑤ 의존 명사가 아라비아 숫자 뒤에 붙는 경우는 붙여 쓸 수 있으므로 ‘100원’과 ‘100 원’을 모두 쓸 수 있다.

A087

201805전북11

정답 ①

출제의도 문장 성분과 문장 구조의 파악

정답해설 ㉠은 체언 ‘고기’를 수식하는 ‘내가 어제 먹은’이라는 관형절을 안고 있는 문장이다. 하지만 ㉡에는 체언을 수식하는 안긴문장이 없다. ‘내 친구’는 ‘민우’를 꾸미고 있지만 관형절이 아니라 관형구이다.

오답피하기

- ② ㉠의 ‘맛이 좋았다’는 서술어의 기능을 하는 안긴 문장이고, ㉡의 ‘운동을 좋아하는’은 ‘철수’를 꾸미는 관형어의 기능을 하는 안긴문장이다.
- ③ ㉠의 ‘내가 어제 먹은’이라는 안긴문장에는 ‘고기’라는 목적어가 생략되어 있고, ㉡의 ‘고등학교생인’이라는 안긴문장에는 ‘나’라는 주어가 생략되어 있다.
- ④ ㉠의 ‘민우가 왔음’과 ㉡의 ‘내가 읽기’는 모두 명사절이다.
- ⑤ ㉠의 ‘땀이 나게’는 부사어의 기능을 하는 부사절이고, ㉡의 ‘내가 읽기에는’은 명사절이 조사와 결합하여 부사어의 기능을 하고 있다.

201806평가원

A092 ④ A093 ③ A094 ④ A095 ⑤ A096 ④

A092~A093

201806평가원11~12

출제의도 명사 / 부사 파생 접미사 및 명사형 전성 어미의 통시적 비교

지문해설 이 글은 현대 국어에서 명사 파생 접미사 ‘-(으)ㄴ’과 명사형 전성 어미 ‘-(으)ㄴ’의, 명사 파생 접미사 ‘-이’와 부사 파생 접미사 ‘-이’의 형태가 같아 발생하는 ‘단어의 형태가 같으나 품사가 다른 경우’를 설명하고 있다. 이후 품사 구별을 위해 해당 접미사 혹은 전성 어미가 결합한 단어들의 문법적 특질을 기술하고 있다. 이에 더해, 중세 국어에서의 명사 파생 접미사와 명사형 전성 어미, 명사 파생 접미사와 부사 파생 접미사의 쓰임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특히 현대 국어와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해 상술하고 있다.

주제 명사 / 부사 파생 접미사 및 명사형 전성 어미의 통시적 비교

A092

201806평가원11

정답 ④

출제의도 중세 국어에 대한 이해

정답해설 4문단의 사례 및 설명, 2문단의 명사와 부사의 특성에 대한 기술 내용을 고려할 때 '노피'는 '높-'에 명사 파생 접미사 '-이'가 결합한 파생 명사이고, '노피'는 '높-'에 부사 파생 접미사 '-이'가 결합한 파생 부사이다.

오답피하기

- ① '여름'은 '열-'에 명사 파생 접미사 '-음'이 결합한 파생 명사이고, '여름'은 '열-'에 명사형 전성 어미 '-음'이 결합한 동사의 명사형이다.
- ② '거름'은 '견-'에 명사 파생 접미사 '-음'이 결합한 파생 명사이고, '거름'은 '견-'에 명사형 전성 어미 '-음'이 결합한 동사의 명사형이다.
- ③ 3문단의 설명을 통해, 중세 국어의 명사형 전성 어미로는 용언 어간의 마지막 음절의 모음이 양성 모음일 때에는 '-음'이, 음성 모음 일 때에는 '-음'이 각각 결합함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4문단의 '노피'에 대한 설명을 통해 '-이'와 결합하는 '고'는 양성 모음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중세 국어 '높-'에는 명사형 전성 어미 '-음'이 결합함을 파악할 수 있다.
- ⑤ 4문단에 따르면 중세 국어에서 부사 파생 접미사 '-이'의 결합은 모음조화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따라서 '곧다', '굳다'가 '-이'와 결합 할 때 그 형태가 모음조화에 따라 달라지지 않음을 파악할 수 있다.

A093

201806평가원12

정답 ④

출제의도 파생 접미사와 전성 어미 이해

정답해설 ④ '도움'과 '믿음' 모두 해당 절에서 서술어로 쓰인다는 점, '믿음'은 부사어 '온전히'의 수식을 받는다는 점에서 '도움'과 '믿음'은 둘 다 동사의 명사형으로 쓰였음을 알 수 있다.

오답피하기

- ① 서술어로 쓰이고 부사어 '많이'의 수식을 받는다는 점에서 '앞'은 동사의 명사형임을, 서술어로 쓰이지 않고 관형어 '격한'의 수식을 받는다는 점에서 '슬픔'은 명사임을 알 수 있다.
- ② 서술어로 쓰이지 않고 관형어 '벌치'의 수식을 받는다는 점에서 '볶음'은 명사임을, 서술어로 쓰이고 부사어 '몹시'의 수식을 받는다는 점에서 '기쁨'은 형용사의 명사형임을 알 수 있다.
- ③ 서술어로 쓰이지 않고 관형어 '큰'의 수식을 받는다는 점에서 '뉘음'은 명사임을, 서술어로 쓰인다는 점에서 '춤'은 동사의 명사형임을 알 수 있다.
- ⑤ 서술어로 쓰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울음'은 명사임을, 서술어로 쓰이고 부사어 '밝게'의 수식을 받는다는 점에서 '웃음'은 동사의 명사형임을 알 수 있다.

A094

201806평가원13

정답 ④

출제의도 한글 맞춤법 이해, 적용

정답해설 '도매가격'과 '도매값'은 둘 다 합성 명사이다.㉠. 그런데 결합하는 두 말의 어종이 전자는 '한자어 + 한자어'이고 후자는 '한자어 + 고유어'라는 점에서 사이시옷 표기 여부가 갈린다.㉡. 두 단어 모두 앞말이 모음으로 끝나며㉢, 뒷말 첫소리가 된소리로 바뀐다.㉣. 따라서 1가지 조건은 ㉡이다.

오답피하기

- ② '전세방'과 '아랫방'은 둘 다 합성 명사이다.㉠. 그런데 결합하는 두 말의 어종이 전자는 '한자어 + 한자어'이고 후자는 '고유어 + 한자어'라는 점에서 사이시옷 표기 여부가 갈린다.㉡. 두 단어 모두 앞말이 모음으로 끝나며㉢, 뒷말 첫소리가 된소리로 바뀐다.㉣. 따라서 ㉠의 1가지 조건은 ㉡이다.
- ③ '버섯국'과 '조갯국'은 둘 다 합성 명사이며㉠, 결합하는 두 말의 어종이 둘 다 '고유어 + 고유어'이다.㉡. 그런데 전자는 앞말이 자음으로 끝나고, 후자는 모음으로 끝난다는 점에서 사이시옷 표기 여부가 갈린다.㉢. 두 단어 모두 뒷말 첫소리가 된소리로 바뀐다.㉣. 따라서 ㉡의 1가지 조건은 ㉢이다.
- ④ '인사말'과 '존댓말'은 둘 다 합성 명사이며㉠, 결합하는 두 말의 어종이 '한자어 + 고유어'이다.㉡. 또한, 두 단어 모두 앞말이 모음으로 끝난다.㉢. 그런데 '존댓말'은 앞말 끝소리에 'ㄴ' 소리가 덧남에 비해 '인사말'은 그렇지 않다는 점에서 사이시옷 표기 여부가 갈린다.㉣. 따라서 ㉡의 1가지 조건은 ㉣이다.
- ⑤ '나무껍질'과 '나뭇가지'는 둘 다 합성 명사이며㉠, 결합하는 두 말의 어종이 '고유어 + 고유어'이다.㉡. 또한, 두 단어 모두 앞말이 모음으로 끝난다.㉢. 그런데 '나뭇가지'는 뒷말 첫소리가 된소리로 바뀌에 비해 '나무껍질'은 그렇지 않다는 점에서 사이시옷 표기 여부가 갈린다.㉣. 따라서 ㉡의 1가지 조건은 ㉣이다.

A095

201806평가원14

정답 ⑤

출제의도 음운 변동 이해, 적용

정답해설 ①의 비표준 발음은 '굵는 → 글는 → [글린]'의 과정을, ㉠의 표준 발음은 '짚네 → 짚네 → 짚레'의 과정을 거치므로 '굵는 → 글는', '짚네 → 짚네'의 자음군 단순화 이후에 '글는 → [글린]', '짚네 → [짚레]'의 유음화가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비해 ①의 표준 발음은 '굵는 → 극는 → [극닌]'의 과정을, ㉠의 비표준 발음은 '짚네 → 짚네 → [짚네]'의 과정을 거치므로 '굵는 → 극는', '짚네 → 짚네'의 자음군 단순화 이후에 '극는 → [극닌]', '짚네 → [짚네]'의 비음화가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과 ㉢의 표준 발음은 각각 '끓기고[끈기고]', '뚫지[뚫치]'이며, 이때 예사소리 'ㄱ', 'ㄷ', 'ㅂ', 'ㅈ'이 'ㅎ'과 만날 때 각각 거센소리. 'ㅋ', 'ㅌ', 'ㅍ', 'ㅊ'으로 바뀌는 거센소리만 일어난다. 정답 ①

A096

201806평가원15

정답 ⑤

출제의도 시간 표현 파악

정답해설 ⑤의 예문은 꿈속의 일이나 무의식중에 일어난 일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의 예로 보기 어렵다. 본인만이 직접 느껴 알 수 있는 감각인 '쓰다'가 서술어인 평서문에서 1인칭

주어와 '-더-'가 함께 쓰인다는 점에서 ㉠의 예에 해당한다.

오답피하기

- ① 다음 주어 약속이 있다는 새삼스럽거나 새롭게 알게 된 내용은 미래의 일이지만 수첩을 보고 그것을 안 시점이 과거이기 때문에 선어말 어미 '-더-'를 써서 표현한다는 점에서 ㉠의 예로 적절하다.
- ② 본인만이 직접 느껴 알 수 있는 감정인 '놀랍다'가 서술어인 평서문에서 1인칭 주어와 '-더-'가 함께 쓰인다는 점에서 ㉠의 예로 적절하다.
- ③ 본인만이 직접 느껴 알 수 있는 감정인 '밧다'가 서술어인의 문문에서 2인칭 주어와 '-더-'가 함께 쓰인다는 점에서 ㉠의 예로 적절하다.
- ④ 본인만이 직접 느껴 알 수 있는 감정인 '기쁘다'가 서술어인 의문문이기기는 하지만, 수사 의문문이므로 1인칭 주어와 '-더-'가 함께 쓰일 수 있는 경우라는 점에서 ㉠의 예로 적절하다.

201807사관학교

A097 ⑤ A098 ⑤ A099 ④ A100 ③ A101 ②

A097 201807사관학교11
정답 ⑤

A098 201807사관학교12
정답 ⑤

A099 201807사관학교13
정답 ④

A100 201807사관학교14
정답 ③

A101 201807사관학교15
정답 ②

201807경찰대

A102 ③ A103 ⑤ A104 ② A105 ③ A106 ④
A107 ③ A108 ⑤ A109 ① A110 ③ A111 ⑤

A102 201807경찰대1
정답 ③

A103 201807경찰대2
정답 ⑤

A104 201807경찰대3
정답 ②

A105 201807경찰대4
정답 ③

A106 201807경찰대5
정답 ④

A107 201807경찰대6
정답 ③

A108 201807경찰대7
정답 ⑤

A109 201807경찰대8
정답 ①

A110 201807경찰대9
정답 ③

A111 201807경찰대11
정답 ⑤

201807인천

A112 ③ A113 ② A114 ④ A115 ① A116 ①

A112 201807인천11
정답 ③
출제의도 합성어의 결합 방식 이해하기
정답해설 ③의 '보살피다'는 '보다'의 어간 '보-'가 연결 어미 없이

용언 ‘살피다’에 바로 결합한 비통사적 합성어이다.

오답피하기

- ① ‘어깨동무’는 명사 ‘어깨’와 명사 ‘동무’가 결합한 합성 명사로 통사적 합성어이다.
- ② 건널목은 용언 ‘건너다’의 어간과 관형사형 어미 ‘-르’이 결합한 용언의 관형사형이 명사 ‘목’과 결합한 합성 명사로 통사적 합성어이다.
- ④ ‘여닫다’는 용언 ‘열다’와 용언 ‘닫다’가 연결 어미 없이 결합한 합성 동사로 비통사적 합성어이다.
- ⑤ ‘검버섯’은 용언 ‘검다’의 어간 ‘검-’이 연결 어미 없이 명사 ‘버섯’과 바로 결합한 합성 명사로 비통사적 합성어이다.

A113

201807인천12

정답 ②

출제의도 중세 국어의 특징 파악하기

정답해설 (나)의 ‘즌흙’은 ‘즐다(현대 국어의 ‘질다’)의 관형사형 ‘즌’이 명사 ‘흙’과 결합한 통사적 합성어로서 현대 국어의 ‘진흙’과 동일한 방법으로 합성된 것이다.

오답피하기

- ③ (다)의 ‘아라듣다’는 용언 ‘알다’와 연결 어미 ‘-아’ 그리고 용언 ‘듣다’가 결합한 통사적 합성어로 현대 국어의 ‘알아듣다’와 동일한 방법으로 합성된 것이다.
- ④ 라)의 ‘숫나다’는 용언 ‘숫다’와 용언 ‘나다’가 연결 어미 없이 바로 결합한 비통사적 합성어인데 현대 국어의 ‘숫아나다’는 연결 어미 ‘-아’와 함께 결합한 통사적 합성어로 쓰이고 있으므로 현대 국어와 다르게 합성된 것이다.
- ⑤ (라)와 (마)를 통해 현대 국어의 ‘숫아나다’가 중세 국어에서는 비통사적 합성어인 ‘숫나다’와 통사적 합성어인 ‘소사나다’의 두 가지 형태로 모두 쓰였을 것이라고 볼 수 있다.

A114

201807인천13

정답 ④

출제의도 된소리되기 이해하기

정답해설 ‘앉을수록’을 [안쫘를쫘]로 발음하는 것은 ‘(-으)르’로 시작되는 어미인 ‘(-으)르수록’의 ‘(-으)르’ 뒤에 연결되는 ‘스’을 [ㅅ]로 발음하는 것이므로 ㉠에 해당한다. 한편 ‘기뻐 곳이’를 [기뻐꼬시]로 발음하는 것은 관형사형 ‘(-으)르’ 뒤에 연결되는 ‘기’을 [기]로 발음하는 것이므로 이 또한 ㉠에 해당한다.

오답피하기

- ① ‘국밥’을 [국ㅍㅍ]으로 발음하는 것은 앞말의 받침 ‘ㄱ’ 뒤에 연결되는 ‘ㅂ’을 [ㅍ]으로 발음하는 것이므로 ㉡에 해당한다. 한편 ‘삼고’를 [삼꼬]로 발음하는 것은 어간 받침 ‘ㄱ(ㅁ)’ 뒤에 결합되는 어미의 첫소리인 ‘기’을 [기]로 발음하는 것이므로 ㉢에 해당한다.
- ② ‘꽃다발’을 [꼇따발]로 발음하는 것은 앞말의 받침 ‘ㄷ(ㅌ)’ 뒤에 연결되는 ‘ㄷ’을 [ㅌ]으로 발음하는 것이므로 ㉡에 해당한다. 한편 ‘할지만’을 [할찌만]으로 발음하는 것은 어간 받침 ‘ㅈ’ 뒤에 결합되는 어미의 첫소리 ‘ㄷ’을 [ㅌ]으로 발음한 것이므로 ㉢에 해당한다.

- ③ ‘옴조리다’를 [옴쫘리다]로 발음하는 것은 앞말의 받침 ‘ㅂ(ㅍ)’ 뒤에 연결되는 ‘ㄷ’을 [ㅌ]으로 발음하는 것이므로 ㉡에 해당한다. 한편 ‘먹을지언정’은 어간 ‘먹-’과 어미 ‘-을지언정’으로 분석되는데, 이것을 [머글찌언정]으로 발음하는 것은 ‘(-으)르’로 시작되는 어미인 ‘(-으)르지언정’의 ‘(-으)르’ 뒤에 연결되는 ‘ㄷ’을 [ㅌ]으로 발음한 것이므로 ㉢에 해당한다.
- ⑤ ‘훑다’를 [훑따]로 발음하는 것은 어간 받침 ‘ㅍ’ 뒤에 결합되는 어미의 첫소리 ‘ㄷ’을 [ㅌ]으로 발음하는 것이므로 ㉢에 해당한다. 한편 ‘떠날지라도’는 어미 ‘(-으)르지라도’의 ‘(-으)르’ 뒤에 연결되는 ‘ㄷ’을 [ㅌ]으로 발음하는 것이므로 ㉢에 해당한다.

A115

201807인천14

정답 ①

출제의도 문장 표현의 특징 파악하기

정답해설 ㉠의 ‘지루하다 못해 졸리다’에서 ‘못해’는 지루하다는 상태에 미치지 않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지루함의 상태가 극에 달해 지루함을 넘어 졸린 상태에 이른 것을 뜻하므로 ‘지루하다’의 상태에 미치지 않았다는 것도, 뒷말을 부정하고 있다는 것도 모두 적절하지 않다.

오답피하기

- ② 부정 표현 중에서 ‘능력’이나 ‘그 밖의 다른 상황’으로 인한 부정을 표현하는 ‘못’ 부정문은 부사 ‘못’을 활용하거나 용언 ‘못하다’에 의해 실현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에서는 ‘자전거를 탄다’의 부정문으로 ‘못 탄다’와 ‘타지 못한다’ 모두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 ③ 명령문의 부정 표현에서는 ‘안’ 부정과 ‘못’ 부정이 아닌 ‘말다’ 부정을 사용한다.
- ⑤ ㉢에서 ‘분명히’는 ‘했다’, ‘하지 않았다’ 모두와 호응을 이루지만 ‘결코’는 ‘하지 않았다’와만 호응을 이룬다. 이를 통해 반드시 부정 표현과 함께 쓰여야 하는 부사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A116

201807인천15

정답 ①

출제의도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이해하기

정답해설 ‘독립문’은 [동님문]으로, ‘대관령’은 [대괘령]으로 발음된다. 그러므로 표기 일람에 따라 각각 ‘Dongnimmun’과 ‘Daegwallyeong’로 적어야 한다.

201808전북

- A117 ④
- A118 ③
- A119 ④
- A120 ④
- A121 ③

A117

201808전북11

정답 ④

정답해설 ‘눈사람’의 끝소리가 ‘ㄹ’이므로, 도구의 의미를 부여하는 부사격 조사로 ‘로’가 필요하다.

오답피하기

- ① ‘들’의 끝소리가 자음이므로 주격 조사 ‘이’가 필요하다.
- ② ‘뽕’의 끝소리가 자음이고, 양성 모음이므로 목적격 조사 ‘을’이 필요하다.
- ③ ‘도죽’이 양성 모음이므로 관형격 조사 ‘이’가 필요하다.
- ⑤ ‘굴허’가 음성 모음이므로 부사격 조사 ‘에’가 필요하다.

A118

201808전북12

정답 ③

정답해설 ㄱ의 ‘야기라’는 앞말이 자음으로 끝나므로 서술격 조사 ‘이라’가 결합한 형태이다. 따라서 ‘약’ 대신 ‘들’이 오더라도 앞말은 역시 자음으로 끝나므로 서술격 조사의 형태는 동일하다.

오답피하기

- ① ㄱ의 ‘바쁜’에서 ‘은’은 현대 국어와 형태도 동일하고 기능도 동일한 보조사이다.
- ② ㄱ의 ‘사르믹’에서 ‘익’은 앞말이 양성 모음이기 때문에 사용된 것이다.
- ④ ㄴ의 ‘입시울’은 중세 국어에서는 접속 조사 ‘와’가 필요하지만 현대 국어에서는 ‘과’가 필요하다.
- ⑤ ㄱ에는 이미 소멸된 ‘익’이 사용되었다. 하지만 ㄴ에서는 찾을 수 없다.

A119

201808전북13

정답 ④

정답해설 ‘날날이’는 명사 ‘날날’ 뒤에 ‘-이’가 붙어서 부사가 된 말이며, ‘삼발이’는 명사 ‘삼발’ 뒤에 ‘-이’가 붙어서 명사로 된 것이다. 따라서 ‘날날이’는 제20항의 1의 예이며, ‘삼발이’는 제20항의 2의 예이다.

오답피하기

- ① ‘같이’는 ‘같다’의 어간에 ‘-이’가 붙어 ‘둘 이상의 사람이나 사물이 함께’ 등의 의미를 갖는 부사로 된 말이다. ‘뽕뽕이’는 명사 ‘뽕+뽕’의 뒤에 ‘-이’가 붙어 ‘한 뽕 한 뽕으로’의 의미를 갖는 부사로 된 말이다.
- ② ‘굳이’는 ‘굳다’의 어간에 ‘-이’가 붙어 ‘단단한 마음으로 굳게’ 등의 의미를 갖는 부사로 된 말이다. ‘곳곳이’는 명사 ‘곳+곳’의 뒤에 ‘-이’가 붙어 ‘여러 곳 또는 이곳저곳’의 의미를 갖는 부사로 된 말이다.
- ③ ‘실없이’는 ‘실없다’의 어간에 ‘-이’가 붙어 ‘말이나 하는 것이 실답지 못하게’의 의미를 갖는 부사로 된 말이다. ‘앞앞이’는 명사 ‘앞+앞’의 뒤에 ‘-이’가 붙어 ‘각 사람의 앞에’ 등의 의미를 갖는 부사로 된 말이다.
- ⑤ ‘짓궂이’는 ‘짓궂다’의 어간에 ‘-이’가 붙어 ‘장난스럽게 남을 괴롭고 귀찮게 하여 달갑지 아니하게’의 의미를 갖는 부사로 된 말이다. ‘집집이’는 명사 ‘집+집’의 뒤에 ‘-이’가 붙어 ‘모든 집마다’의 의미를 갖는 부사로 된 말이다.

A120

201808전북14

정답 ④

정답해설 ‘활아’는 겹받침이 모음으로 시작된 어미와 결합하는 경우인데, 이 경우 겹받침의 뒤엣것만을 뒤 음절 첫소리로 옮겨 발음하므로 [할타]로 발음하는 것이 적절하다. ‘값을’은 겹받침이 모음으로 시작된 조사와 결합하는 경우인데, 이 경우 겹받침의 뒤엣것만을 뒤 음절 첫소리로 옮겨 발음하는데, 이 경우 ‘ㅅ’은 된소리로 발음하므로 [갑쓸]로 발음하는 것이 적절하다.

오답피하기

- ① ‘넋’의 겹받침 ‘ㄴ’은 자음 앞에서 [ㄱ]으로 발음하므로, ‘넋과’는 [넉과]로 발음한다. 또한 ‘앉’의 겹받침 ‘ㅈ’은 자음 앞에서 [ㄷ]으로 발음하므로, ‘앉다’는 [안따]로 발음한다.
- ② ‘흙’의 겹받침 ‘ㄷ’은 자음 앞에서 [ㄱ]으로 발음하므로, ‘흙과’는 [흑과]로 발음한다. 또한 ‘웁’은 자음 앞에서 [ㅂ]으로 발음하므로 ‘웁고’는 [읍꼬]로 발음한다.
- ③ ‘앉아’는 겹받침이 모음으로 시작된 어미와 결합하는 경우인데, 이 경우 겹받침의 뒤엣것만을 뒤 음절 첫소리로 옮겨 발음하므로 [안자]로 발음한다. 또한 ‘닭을’은 겹받침이 모음으로 시작된 조사와 결합하는 경우인데, 이 경우 겹받침의 뒤엣것만을 뒤 음절 첫소리로 옮겨 발음하므로 [달글]로 발음한다.
- ⑤ ‘값어치’는 겹받침 뒤에 모음 ‘ㅣ’로 시작되는 실질 형태소가 연결되는 경우이므로 겹받침 중의 하나만을 옮겨 [가버치]로 발음한다. ‘닭 앞’은 겹받침 뒤에 ‘ㅈ’로 시작되는 실질 형태소가 연결되는 경우이므로 겹받침 중의 하나만을 옮겨 [다가궂]로 발음한다.

A121

201808전북15

정답 ③

정답해설

- ㄴ. 절대 시제는 발화시를 기준으로 시제를 판단하는 것이므로, A~C 문장의 발화시는 각각 ‘도와드렸다’, ‘들었다’, ‘추었다’로 볼 때 사건시보다 선행하므로 과거 시제에 해당한다.
- ㄷ. 상대 시제는 전체 문장의 사건시에 기대어 시제를 판단하는 것이므로, A의 ‘청소하시는’, B의 ‘우는’, C의 ‘들으면서’는 각각 현재에 해당한다.
- ㄱ. A의 ‘어제’, B의 ‘어제’는 각각 A의 ‘나’와 B의 ‘나’가 경험한 사건에 대해 사건시가 발화시보다 선행함을 알려준다.
- ㄹ. C의 ‘들으면서’는 ‘추었다’는 사건에 대한 기준이 되어 문장의 사건이 발화시보다 이전에 일어났음을 알려 준다.

201809평가원

- A122 ⑤ A123 ④ A124 ① A125 ③ A126 ④

A122~A123

201809평가원11~12

출제의도 품사 분류의 기준 및 동사와 형용사의 구별
지문해설 이 글은 품사 분류의 기준으로 ‘형태, 기능, 의미’를 제시하고, 이러한 기준들을 적용한 결과로 개별 품사들이 분류될 수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 또한, 동사와 형용사의 구별에 대해 상술하여 동일한 형태의 단어가 동사와 형용사로 모두 쓰이는 사

례로 '밝다'를 제시하고 있다. 끝으로, '있다, 없다'의 경우 예외적인 양상을 보여서 의미에 따라 동사와 형용사로 분류할 수 있지만 동사와 형용사로 쓰일 때 모두 관형사형 어미 '-는'이 결합할 수 있음을 다루고 있다.

주제 품사 분류의 일반적인 기준 및 동사와 형용사의 구별 방법

A122

201809평가원11

정답 ⑤

출제의도 품사의 세부 유형 분류, 적용

정답해설 '즐거움'은 '마음에 거슬림이 없이 흐뭇하고 기쁘다.'라는 뜻을 지니는 '즐겁다'의 어간에 관형사형 어미 '-ㄴ'이 결합한 형태로, 형용사이다. 형용사는 활용을 하고 사물의 속성이나 상태를 나타낸다. ㉠은 관형사에 대한 설명으로, 제시된 예문에서 관형사는 쓰이지 않았다.

오답피하기

- ① ㉠은 명사에 대한 설명으로, 제시된 예문에서는 '옛날, 사진, 기억'이 이에 해당한다.
- ② ㉡은 동사에 대한 설명으로, 제시된 예문에서는 '보니, 떠올랐다'가 이에 해당한다.
- ③ ㉢은 수사에 대한 설명으로, 제시된 예문에서는 '하나'가 이에 해당한다.
- ④ ㉣은 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제시된 예문에서는 '을, 가'가 이에 해당한다. '을'은 목적격 조사이고, '가'는 주격 조사이다.

A123

201809평가원12

정답 ④

출제의도 각 품사의 특징 파악

정답해설 마지막 문단의 '존재', '소유'와 같이 상태의 의미를 나타내는 '있다'는 형용사로 쓰인다는 설명에 따라 ㉠의 '있다'와 '없다'는 형용사로 쓰임을 알 수 있다. '있다, 없다'의 경우 동사와 형용사로 쓰일 때 모두 관형사형 어미 '-는'과 결합할 수 있다고 하였기 때문에 예문 '돈이 있는(없는) 사람'은 '있다, 없다'가 동사로 쓰였는지, 형용사로 쓰였는지를 판별하는 기준이 되기 어렵다.

오답피하기

- ① '예쁘다'가 쓰인 문장이 비문임을 통해 현재 시제 선어말 어미 '-ㄴ/는-'은 형용사와 결합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다.
- ② '예뻐라', '예쁘자'가 쓰인 문장이 비문임을 통해 명령형·청유형 어미는 형용사와 결합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다.
- ③ '예쁘려고', '예쁘러'가 쓰인 문장이 비문임을 통해 의도나 목적을 나타내는 연결 어미 '-려고', '-러'는 형용사와 결합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다.
- ⑤ '나무가 크다.'의 '크다'와 '머리카락이 길다.'의 '길다'는 속성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형용사이다. '나무가 쭉쭉 크다.'의 '크다'와 '머리카락이 잘 길다.'의 '길다'는 상태의 변화를 나타내는 동사이다. 후자는 선어말 어미 '-ㄴ-'과 결합할 수 있다.

A124

201809평가원13

정답 ①

출제의도 로마자 표기법과 로마자 표기의 실제

정답해설 ㉠에서는 끝소리가 'ㄷ', 'ㅌ'인 형태소가 모음 'ㅣ'나 반모음 'ㅣ[j]'로 시작되는 형식 형태소와 만나면 그것이 구개음 'ㅈ', 'ㅊ'으로 변하는 구개음화가 일어나며, 이러한 음운 변동은 '땀받이[땀바지]'에서도 일어난다. 한편 구개음화는 로마자 표기에 반영되는데, 이는 '같이[가치]'를 'gati'가 아니라 'gachi'로 적은 것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오답피하기

- ② ㉡에서는 된소리되기가 일어나며, 이는 '삭제[삭제]'에서도 일어난다. 된소리되기는 로마자 표기에 반영되지 않는데, 이는 '잡다[잡따]'를 'japtta'가 아니라 'japda'로 적은 것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③ ㉢에서는 거센소리되기가 일어나며, '뿔아[다라]'에서는 'ㅎ 탈락'이 일어난다. 용언의 활용에서의 거센소리되기는 로마자 표기에 반영되는데, 이는 '놓지[노치]'를 'nohji'가 아니라 'nochi'로 적은 것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④ ㉣에서는 'ㄴ 첨가'가 일어나며, 이는 '한여름[한너름]'에서도 일어난다. 'ㄴ 첨가'는 로마자 표기에 반영되는데, 이는 '맨입[맨닙]'을 'maenip'이 아니라 'maennip'으로 적은 것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⑤ ㉤에서는 비음화가 일어나며, 이는 '밤물[밤물]'에서도 일어난다. 비음화는 로마자 표기에 반영되는데, 이는 '백미[백미]'를 'baekmi'가 아니라 'baengmi'로 적은 것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A125

201809평가원14

정답 ③

출제의도 중세 국어에 대한 이해

정답해설 ㉠이 설명하는 예문에서 객체는 부사어 '부텃기(부처께)'의 '부텃(부처)'이다. '왕(王)'은 주체이며, '마스물(마음을)'은 목적어로 쓰였다. 객체인 '부텃(부처)'를 높이기 위해 '내아'가 아니라 '내스바(내- + -술- + -아)'가 쓰인 것이다. ㉡이 설명하는 예문에서 객체 높임 선어말 어미는 어간 '듣-'과 어미 '-으며' 사이에 결합하는데, <보기>에서 어간 말음이 'ㄷ'이고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올 때 쓰이는 객체 높임 선어말 어미의 형태는 '-줄-'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듣- + -줄- + -으며'를 연결(이어적기)한 '듣즈븍며'가 적절하다.

A126

201809평가원15

정답 ④

출제의도 문장의 짜임새 파악

정답해설 ㉠에는 '내가 늘 쉬-'가 전성 어미 '-던'을 통해 관형절로 안겨 있으며, 안긴문장에 부사어 '공원에서'가 생략되어 있다.

오답피하기

- ① ㉠에는 '자식이 건강하-'가 전성 어미 '-기'를 통해 명사절로 안겨 있으며, 안긴문장에 생략된 문장 성분은 없다.
- ② ㉡에는 '연락도 없-'이 전성 어미 '-이'를 통해 부사절로 안겨 있으며, 안긴문장에 생략된 문장 성분은 없다.

- ③ ㉠에는 '자신의 판단이 옳았-'이 전성 어미 '-음'을 통해 명사절로 안겨 있으며, 안긴문장에 생략된 문장 성분은 없다.
- ⑤ ㉡에는 '아주 어렵-'이 전성 어미 '-은'을 통해 관형절로 안겨 있으며, 안긴문장에는 주어 '과제가'가 생략되어 있다.

201810서울
A127 ② A128 ③ A129 ② A130 ③ A131 ③

A127 201810서울11

정답 ②
출제의도 음운 변동 현상을 이해한다.
정답해설 ㉠에서 축약은 일어나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오답피하기
 ① ㉠에서 받침 'ㅎ'과 'ㄱ', 'ㄷ', 'ㅈ'이 결합하여 축약이 일어나 [크], [티], [치]로 발음된다.
 ③ ㉢에서 '놓는'은 음절의 끝소리 규칙과 비음화가 일어나 [놓는 → 논는]으로 발음된다. '쌓네'도 음절의 끝소리 규칙과 비음화가 일어나 [쌓네 → 짚네]로 발음된다.
 ④ ㉣에서 '않는'과 '맡네'는 'ㅎ'이 탈락하여 [안는], [만:네]로 발음된다.
 ⑤ ㉤에서 '낳은', '놓아'는 각각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은'과 '-아'가 올 때 'ㅎ'이 탈락하여 [나은], [노아]로 발음된다. 그리고 '쌓이다'는 모음으로 시작하는 접사 '-이-' 앞에서 'ㅎ'이 탈락하여 [싸이다]로 발음된다.

A128 201810서울12

정답 ③
출제의도 파생어의 특징을 파악한다.
정답해설 '넓다'는 형용사이고, '넓히다'는 동사이므로 품사가 달라지고, '(방이) 넓다'에서 '(방을) 넓히다'로 문장 구조가 달라진다. '팔다'와 '팔리다'는 모두 동사이므로 품사가 달라지지 않고, '(책을) 팔다'에서 '(책이) 팔리다'로 문장 구조가 달라진다.

A129 201810서울13

정답 ②
출제의도 띄어쓰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정답해설 본동사와 본동사는 띄어 써야 하므로 '주고 갔다'로 띄어 써야 한다.
오답피하기
 ① 어미는 어간과 붙여 써야 하므로 적절하다.
 ③ 형용사는 앞말과 띄어 써야 하므로 적절하다.
 ④ 의존 명사는 앞말과 띄어 써야 하므로 적절하다.
 ⑤ 조사는 앞말과 붙여 써야 하므로 적절하다.

A130 201810서울14

정답 ③
출제의도 중세 국어의 높임 표현을 이해한다.
정답해설 '보습고'에는 객체 높임 선어말 어미 '-습-'이 사용되었다. '-습-'은 '世尊(세존)'을 직접적으로 높이고 있으므로, '龍王(용왕)'을 간접적으로 높이고 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A131 201810서울15

정답 ③
출제의도 현대 국어의 높임 표현을 이해한다.
정답해설 ㉠에서는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 '-시-'를 사용해 '치아'를 높임으로써 '할아버지'를 높이고 있다. ㉡에서는 객체 높임을 나타내기 위한 특수 어휘 '모시다'를 사용해 '고모님'을 높이고 있다. ㉢에서는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 '-시-'를 사용해 '아버지'를 높이고 있다. ㉣에서는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 '-시-'를 사용해 '생각'을 높임으로써 '그분'을 높이고 있다. ㉤에는 객체 높임이 나타나 있고, ㉠, ㉢, ㉣에는 주체 높임이 나타나 있으므로, '학생 2'는 객체에 해당하는 인물을 높이는가의 여부를 분류의 기준으로 삼았음을 알 수 있다.

201811전북
A132 ⑤ A133 ④ A134 ④ A135 ④ A136 ④

A132 201811전북11

정답 ⑤
출제의도 형태소 분석의 적절성 파악
정답해설 '보았다'의 '-았-'과 '먹었다'의 '-었-'은 모두 과거 시제 선어말 어미로 앞말의 모음이 양성이나 음성이나에 따라 다른 형태를 지니게 되는 음운론적 이형태에 해당한다. 따라서 '-았-'과 '-었-'이 형태론적 이형태에 해당한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피하기
 ① ㉠은 '나', '는', '산', '으로', '가-', '-서', '별', '을', '보-', '-았-', '-다'라는 11개의 형태소로 이루어진 문장이다.
 ② ㉡의 자립 형태소는 '형', '나', '함께', '바다', '물', '고기' 6개이며, 의존 형태소는 '은', '와', '로', '가-', '-서', '를', '먹-', '-었-', '-다' 9개이다.
 ③ ㉢의 실질 형태소는 '나', '산', '가-', '별', '보-' 5개이며, ㉣의 실질 형태소는 '형', '나', '함께', '바다', '가', '물', '고기', '먹-' 8개이다.
 ④ ㉤의 '으로'와 ㉣의 '로'는 모두 움직임의 방향을 나타내는 부사격 조사이다. 이는 앞말의 받침 유무에 따라 다른 형태를 지니는 음운론적 이형태에 해당한다.

A133 201811전북12

정답 ④

출제의도 중세 국어의 이형태 파악

정답해설 (다)의 '버리'는 '별'에 주격 조사 '이'가 결합한 후, 이어 적기 표기에 따라 '버리'로 표기된 것이며, (라)의 '賈鯨이' 역시 '賈鯨'에 주격 조사 '이'가 결합된 것이다. 따라서 '버리'와 '賈鯨이'는 모두 앞말이 자음으로 끝났기 때문에 공통적으로 주격 조사 '이'가 사용된 경우이다.

오답피하기

- ① (가)의 '내'와 (마)의 '父母'에 사용된 주격 조사는 공통적으로 'ㅣ'이다. 이는 앞말이 'ㅣ'나 반모음이 아닌 모음으로 끝났기 때문에 사용된 것이다.
- ② (가)의 '이틀'과 (나)의 '舍利'는 모두 앞말의 모음이 'ㅣ'로 끝났기 때문에 양성에 붙는 목적격 조사인 '를'이 사용되었다.
- ③ (나)의 '부텨'는 앞말이 높임의 유정 명사이기 때문에 관형격 조사로 '스'이 사용되었고, (마)의 '아들익'는 앞말이 평칭의 유정 명사이고 앞말의 모음이 양성이기 때문에 관형격 조사로 '익'가 사용되었다.
- ⑤ (라)의 '눈므'는 '눈'과 목적격 조사 '을'이 결합한 후, 이어 적기 표기에 따라 '눈므'로 표기된 것인데, 목적격 조사 '을'은 앞말이 자음으로 끝나고 앞말의 모음이 음성일 때 사용된다. (마)의 '마'는 '말'과 목적격 조사 '을'이 결합한 후, 이어 적기 표기에 따라 '마'로 표기된 것으로, 목적격 조사 '을'은 앞말이 자음으로 끝나고 앞말의 모음이 양성일 때 사용된다.

A134

201811전북13

정답 ④

출제의도 음운 변동의 이해

정답해설 ㉠에서는 '자음군 단순화', 'ㄴ 첨가', '비음화'가 일어나 총 3회의 음운 변동이 일어났으며, ㉡에서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 '비음화', '경음화'가 일어나 총 3회의 음운 변동이 일어났다.

오답피하기

- ① ㉠에서는 '굵는 → [극는]'이 되는 과정에서 탈락이 일어나 음운의 개수가 7개에서 6개로 되었지만, ㉡에서는 '삿일 → [삭닐]'이 되는 과정에서 탈락과 첨가가 일어나 음운의 개수가 6개를 유지하였다.
- ② ㉠에서는 '굵는 → [극는(탈락)] → [극는(교체)]로 음운 변동이 일어났고, ㉡에서는 '활이다 → [할치다(교체)]로 음운 변동이 일어났다. ㉠과 ㉡에서 공통적으로 일어난 음운 변동은 교체이다.
- ③ ㉠에서는 '삿일 → [삭일(탈락)] → [삭닐(첨가)] → [상닐(교체)]로 음운 변동이 일어났고, ㉡에서는 '활이다 → [할치다(교체)]로 음운 변동이 일어났다. ㉠과 ㉡에서 공통적으로 일어난 음운 변동은 교체이다.
- ⑤ ㉡에서는 '활이다 → [할치다(교체)]로 음운 변동이 일어났고, ㉠에서는 '웃맵시 → [온맵씨(교체 2회)] → [온맵씨(교체)]로 음운 변동이 일어났다. 음운의 개수가 달라지는 음운 변동은 탈락, 축약, 첨가가 있는데 ㉠과 ㉡에서는 모두 교체만 일어났다.

A135

201811전북14

정답 ④

출제의도 문장의 짜임 이해

정답해설 ㄹ의 안긴문장 '내가 네게 사과할게'는 보조사가 아니라 격 조사 '라고'가 결합하여 실현되고 있으며, 안은문장의 주어인 '그'의 말을 직접 인용하고 있다.

오답피하기

- ① ㄱ의 안긴문장 '숨씨가 훌륭하다'는 특별한 표지 없이 안긴문장이 실현된 서술절이다. 안은문장의 주어 '그녀는'과 안긴문장의 주어 '숨씨가'는 서로 다르다.
- ② ㄴ의 안긴문장 '내가 먹을'은 관형사형 어미 '-(으)ㄹ'이 붙어 실현된 관형절이다. 안긴문장에서는 주성분인 목적어 '간식을'이 생략되어 있다.
- ③ ㄷ의 안긴문장 '그가 정직함'은 명사형 어미 '-(으)ㅁ'이 붙어 실현된 명사절이다. 안긴문장이 안은문장에서 목적어 역할을 하고 있다.
- ⑤ ㅁ의 안긴문장 '아이들이 지나가도록'은 부사형 어미 '-도록'이 붙어 실현된 부사절이다. ㅁ은 안긴문장을 생략해도 문장의 성립이 가능하다.

A136

201811전북15

정답 ④

출제의도 담화 표현의 이해

정답해설 ㉠의 '우리'는 '어떤 대상이 자기와 친밀한 관계임을 나타낼 때 쓰는 말'로 쓰였다. 해당 의미로 쓰일 때는 '우리 엄마', '우리 학교'처럼 대부분 명사 앞에 위치한다.

오답피하기

- ① ㉡의 '여기'는 말하는 이에게 가까운 곳을 가리키는 지시 대명사이다.
- ② ㉢의 '그거'는 듣는 이에게 가까이 있는 사물을 가리키는 지시 대명사이다. '그거'는 앞에서 이미 이야기한 대상을 가리키는 용도로도 쓰이지만 해당 담화의 앞부분에서 특정 대상을 가리키지는 않았으므로 지시 표현으로 쓰였음을 알 수 있다.
- ③ ㉣의 '아무'는 특정 대상을 가리키지 않는 인칭 대명사이다.
- ⑤ ㉤의 '언제'는 잘 모르는 때를 가리키는 지시 대명사이다.

201811대구

A137 ① A138 ① A139 ③ A140 ⑤ A141 ②

A137

201811대구11

정답 ①

출제의도 표준 발음법을 적용하여 발음하기

정답해설 '끝을'은 자음으로 끝나는 말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가 오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끄틀]로 발음한다. '말게'는 표준 발음법 제11항 다만에 해당하므로, [말께]로 발음한다. '부엌 안'은 자음으로 끝나는 말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실질 형태소가 연결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표준 발음법 제9항을 먼저 적용하여 'ㄹ'을 대표음 [ㄱ]으로 바꾼 후 뒤음절 첫 소리로 옮겨 [부어간]으로 발음한다.

A138

201811대구12

정답 ①

출제의도 품사의 통용에 대해 이해하기

정답해설 첫 번째 문장에 들어 있는 '보고' 와, 두 번째 문장에 들어 있는 '보았다' 는 모두 동사이기 때문에 품사의 통용에 해당 하는 예가 아니다.

오답피하기

- ② 첫 번째 문장의 '큰다'는 '자라다' 의 의미와 관련된 동사이고, 두 번째 문장의 '크다'는 형용사이다.
- ③ 첫 번째 문장의 '다른'은 형용사이고, 두 번째 문장의 '다른'은 체언을 수식하는 관형사이다.
- ④ 첫 번째 문장의 '매일'은 명사이고, 두 번째 문장의 '매일'은 '설쳤다' 를 수식하는 부사이다.
- ⑤ 첫 번째 문장의 '만큼'은 의존명사이고, 두 번째 문장의 '만큼' 은 조사이다.

A139

201811대구13

정답 ③

출제의도 담화 상황에 대한 분석의 적절성 판단하기

정답해설 ㉠의 '그게'와 ㉡의 '이런'은 대상에 대한 물리적 거리를 나타내는 표현이 아니라, 앞 문장의 내용을 가리키는 표현에 해당 하므로 ③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피하기

- ① ㉠, ㉡은 창민이 지목한 책을 가리키는 표현이다.
- ② ㉢, ㉣은 언제 말하는지를 기준으로 가리키는 시간이 달라지는 표현이다. 따라서 발화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 표현이라 할 수 있다.
- ④ ㉤은 '창민, 화연'을 가리키지만, ㉥은 '창민, 다혜, 화연'을 가 리킨다고 볼 수 있다.
- ⑤ ㉦, ㉧은 다혜가 이동하는 행위를 나타낸 말인데, 발화자(창민, 다혜)에 따라 다르게 표현되었다.

A140

201811대구14

정답 ⑤

출제의도 중세 국어 어휘의 이해

정답해설 '구무'는 모음으로 시작하는 처소의 부사격 조사 '의'와 결합할 때 체언의 끝 모음 '우'가 탈락하고 자음 '구'이 덧생겨 '굶귀'로 나타난다.

오답피하기

- ①, ② '굶귀'를 형태소 분석할 경우 '구무(구명)'과 '의(에)'로 분석 할 수 있다.
- ③ '구무'에 처소의 부사격 조사 '의'가 결합하면서 체언의 끝 모음 '우'가 탈락한 것이다.
- ④ '구무'는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인 공동의 부사격 조사 '와'와 결합할 때 예외적으로 형태를 그대로 유지한다. 따라서 '구무+와'는 '굶과'가 아니라 '구무와'로 나타나게 된다.

A141

201811대구15

정답 ②

출제의도 음운 변동의 이해

정답해설 중세 국어에서 ㅎ중성 체언인 '안'은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와 결합할 때 ㅎ이 뒤따르는 모음에 연음한다. 따라서 '안'과 주격 조사 '이'가 결합할 경우 '안히'로 나타나게 된다.

오답피하기

- ① 중세 국어와는 달리 현대 국어에서는 조사와 결합할 때 체언의 형태가 바뀌는 경우는 없다.
- ③ ㅎ 중성 체언은 관형격 조사인 '스'와 결합할 때 는 나타나지 않지만 그 외에 'ㄱ, ㄷ'으로 시작하는 조사와 결합하게 될 경우 '크, 트'으로 축약되어 나타난다. 따라서 '안과'로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 ④ '안+밖'이 '안팎'이 되는 과정에서 'ㅂ'이 'ㅍ'이 되는 것은 중세 국어의 ㅎ 중성 체언이었던 '안'에 'ㅎ'의 흔적이 남아 'ㅂ'과 결합하여 음운이 축약되는 현상으로 볼 수 있다.
- ⑤ '옳지 않다'가 [옳지 안타]로 축약되는 현상은 '옳-'과 '않-'이 용언의 어간이므로 ㅎ 중성 체언과는 관련이 없는 것이다.

201811수능

A143 ② A144 ⑤ A145 ③ A146 ⑤ A142 ③

A143

201811수능12

정답 ②

출제의도 단어의 구조 파악

정답해설 'ㄹ' 받침의 명사가 합성어를 형성할 때, ㉠은 'ㄹ'이 그대로 유지되는 경우, ㉡은 'ㄹ'이 탈락하는 경우, ㉢은 'ㄹ'이 'ㄷ'으로 바뀌는 경우이다. <보기>에서 ㉠에 해당하는 사례는 '쌀 가루(쌀+가루)', '솔방울(솔+방울)'이고, ㉡에 해당하는 사례는 '무술(물+술)', '푸나무(풀+나무)'이며, ㉢에 해당하는 사례는 '설탕(설탕+달)'이다. '날알(날+알)'은 'ㄹ' 받침의 명사가 합성어를 형성한 경우가 아니다.

A144

201811수능13

정답 ⑤

출제의도 국어의 변화 과정 이해

정답해설 근대 국어로 오면서 받침 '스'와 'ㄷ'의 발음이 구분되지 않게 되었다는 제시문의 설명을 통해 볼 때, '술 → 솟', '몫 → 뭇'의 과정에서 '스'의 발음이 서로 다른 것은 아니다. 이러한 이유에 근거하여 이 제시문에서는 '몫'을 '뭇'으로 적는 것처럼 '술'도 '솟'이 아니라 '솟'으로 적는 것이 국어의 변화 과정을 고려한 관점에 부합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오답피하기

- ① 중세 국어에서 '술', '저', '이틀'은 모두 자립 명사이다. [자료]의 '중세 국어의 예' 중 첫 번째 예와 제시문의 '이틀'에 대한 설명 부분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반면 현대 국어의 '술'은 '밥 따위의 식물체를 손가락으로 떠 그 분량을 세는 단위'의

뜻을 지니는 의존 명사이다. [자료]의 '현대 국어의 예' 중 첫 번째 예에서 '술'이 자립 명사로 쓰이지 않음을, 세 번째 예에서 '술'이 의존 명사로 쓰임을 확인할 수 있다.

- ② [자료] '중세 국어의 예'의 두 번째 예 중 하나인 '수저'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 ③ [자료] '중세 국어의 예'의 두 번째 예 중에서 '숯 근', '젓 가락 근'을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다.
- ④ 제시문의 마지막 부분에서 중세 국어의 '이튿 날' 혹은 '이튿 날'이 근대 국어의 '이튿날'을 거쳐 현대 국어의 '이튿날'로 적히는 것은 국어의 변화 과정을 고려한 관점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은 근대국어 '숫가락'이 현대국어 '숯가락'으로 적히는 데에도 적용된다.

A145

201811수능14

정답 ③

출제의도 문장의 짜임새 파악

정답해설 ㉠의 안은문장은 '동주는 별을 응시했다.'이고 안긴문장은 '별이 반짝이다.'이다. 따라서 '별'은 안은문장의 목적어이며, 안긴문장의 목적어는 아니다. ㉡의 안긴문장에는 목적어가 없다.

오답피하기

- ① ㉠의 서술어 '삼았다'는 주어 이외에도 목적어 '위기를'과 부사어 '좋은 기회로'를 필수적으로 요구한다.
- ② ㉠의 안은문장은 '바다가 파랗다.'이고, 안긴문장은 '눈이 부시다.'이다. 따라서 '바다가'와 '눈이'는 각각 '파랗다'와 '부시다'의 주어이다.
- ④ ㉠의 안긴문장은 '기회가 좋다.'이고, ㉠의 안긴문장은 '별이 반짝이다.'이다. 따라서 '좋은'과 '반짝이는'은 안긴문장의 서술어이다.
- ⑤ ㉠의 '눈이 부시게'는 부사절이고, ㉡의 '반짝이는'은 관형사절이다. 둘 다 수식의 기능을 한다.

A146

201811수능15

정답 ⑤

출제의도 품사의 개념 파악, 어휘의 사전적 의미 파악

정답해설 ㉠, ㉡의 '밭'은 형용사 '밭다'의 활용형이며, ㉢, ㉣의 '바투'는 부사이다. 따라서 ㉠의 표제어는 부사 '바투'이다. '바투'의 뜻을 고려해 볼 때 예문으로는 공간의 의미를 읽을 수 있는 ㉠이 적절하다. ㉢은 '바투'의 예문으로 적절하다. '밭다'의 뜻을 고려할 때 예문으로는 ㉠과 ㉡이 모두 적절하다.

A142

201811수능11

정답 ③

출제의도 음운의 개념, 특성 파악

정답해설 [A]에서 '쉬리-소리', '마루-머루', '구실-구슬'은 각각 최소 대립쌍이다. 이를 통해 음운 'ㄱ', 'ㄴ', 'ㄷ', 'ㄹ', 'ㄷ', 'ㄷ', 'ㄷ'를 추출할 수 있다. [B]의 단모음 체계에 따르면 'ㄱ'은 고모음, 전설 모음, 원순 모음이고, 'ㄴ'은 중모음, 후설 모음, 원순 모음이다.

또한, 'ㄷ'은 저모음, 후설 모음, 평순 모음이고, 'ㄹ'은 중모음, 후설 모음, 평순 모음이다. 끝으로, 'ㅣ'는 고모음, 전설 모음, 평순 모음이고, 'ㅡ'는 고모음, 후설모음, 평순 모음이다. 따라서 추출된 6개의 모음을 혀의 높낮이에 따라 분류하면 '3개의 고모음, 2개의 중모음, 1개의 저모음'을, 혀의 앞뒤에 따라 분류하면 '2개의 전설 모음, 4개의 후설 모음'을, 입술의 모양에 따라 분류하면 '4개의 평순 모음, 2개의 원순 모음'을 확인할 수 있다.

201903서울

A147 ② A148 ① A149 ④ A150 ⑤ A151 ⑤

A147

201903서울11

정답 ②

출제의도 음운 변동 현상을 이해한다.

정답해설 축약이란 두 개의 음운이 합쳐져 하나의 음운으로 줄어드는 현상을 말한다. 국어에서는 'ㅎ'과 예사소리 'ㄱ, ㄷ, ㅂ, ㅈ'이 만나면 거센소리로 축약되는 현상이 일어난다. <보기>의 밑줄 친 ㉠은 그중에서도 용언의 어간 말음 'ㅎ' 뒤에 예사소리 'ㄱ, ㄷ, ㅈ'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올 때 일어나는 축약을 가리키고 있다. ㉡에서 어간 '놓-'과 어미 '-기'가 결합하여, 용언 어간 말음의 'ㅎ'과 어미의 'ㄱ'이 거센소리로 축약되었다.

오답피하기

- ① '한뿔[한뿔]'을 발음할 때, 종성에 있는 자음군에서 자음 하나가 탈락하므로 ㉠이 일어난다.
- ③ '끓지[끓치]'를 발음할 때, 용언 어간 말음의 'ㅎ'과 뒤에 오는 어미의 'ㅈ'이 'ㅈ'으로 축약되므로 ㉡이 일어난다.
- ④ '값할[가핍]'을 발음할 때, 종성의 자음군에서 자음 하나가 탈락하므로 ㉡이 일어난다. 'ㅂ'과 'ㅎ'의 축약이 일어나지만 용언 어간 말음 'ㅎ' 뒤에 'ㄱ, ㄷ, ㅈ'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결합할 때 일어나는 축약은 아니다.

A148

201903서울12

정답 ①

출제의도 중세 국어의 체언을 이해한다.

정답해설 ㉠에서는 '하늬'에 조사 '이'가 붙어 '하늘히'로 연음되었으므로 음운의 개수에 변동이 없다. 그러나 ㉡에서는 '하늬'의 말음인 'ㅎ'과 뒤에 오는 '도'의 'ㄷ'이 'ㅌ'으로 축약되어 '하늘토'로 나타났으므로, 음운의 개수가 줄어들었다.

오답피하기

- ② '하늬'와 '하늘' 모두 'ㅎ'은 실현되지 않았으며, '하늬'는 관형격 조사 '시'가 결합되어 있는 것이다.
- ③ '하늘토'에서 'ㅌ'은 '하늬'의 말음인 'ㅎ'과 뒤에 오는 조사 '도'의 'ㄷ'이 축약되어 나타난 것이므로, 'ㅎ'의 존재를 알 수 있다.
- ④ '하늬'는 관형격 조사 '시'가 결합한 것으로, 'ㅎ'이 실현되지 않았다.
- ⑤ '하늬'에 조사 '도, 과'가 결합하면 'ㅎ'과 'ㄷ, ㄱ'이 축약되어 '하늘토, 하늘과'로 나타났다.

A149

201903서울13

정답 ④

출제의도 형태소와 단어의 개념을 파악한다.

정답해설 의미를 가진 가장 작은 말의 단위를 형태소라고 한다. 형태소는 자립성의 유무에 따라 자립 형태소와 의존 형태소로 나뉘고, 실질적 의미의 유무에 따라 실질 형태소와 형식 형태소로 나뉜다. 밑줄 친 ‘물-/물-’, ‘-었-/~았-’, ‘는/은’은 모두 반드시 다른 말과 결합하여 쓰이는 의존 형태소들이다. 또한 이들은 음운 환경에 따라 형태가 바뀐다. ‘물-’은 자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 나타나고, ‘물-’은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 나타난다. 어미 ‘-었-/~았-’은 어간 끝음절의 모음에 따라 형태가 바뀌고, 조사 ‘는/은’은 결합하는 앞말의 끝음절에 받침이 있는가, 없는가에 따라 형태가 바뀐다. 그리고 ‘-었-/~았-’, ‘는/은’은 실질적 의미 없이 문법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형식형태소이고, ‘물-/물-’은 실질적 의미를 나타내는 실질 형태소이다.

A150

201903서울14

정답 ⑤

출제의도 사전을 통해 어미의 쓰임을 이해한다.

정답해설 ‘흰 눈이 내립니다.’에서 ‘흰’의 ‘-ㄴ’은 현재의 상태를 나타내는 관형사형 어미이므로 ‘-ㄴ’의 예문으로 추가해야 한다.

오답피하기

- ① ‘간다’를 보면 ‘-ㄴ-’은 종결 어미 ‘-다’의 앞에 붙을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짚’의 ‘-ㄴ’과 ‘유명한’의 ‘-ㄴ’은 뒤에 다른 어미가 붙을 수 없다.
- ② ‘간다’는 ‘가신다’로, ‘짚’은 ‘짜신’으로, ‘유명한’은 ‘유명하신’으로 쓸 수 있다.
- ③ ‘짚’은 ‘웃’을 수식하고, ‘유명한’은 ‘성악가’를 수식하는 관형어 구실을 하고 있다.
- ④ ‘간다’와 ‘유명한’은 현재 시제를 나타내고, ‘짚’은 과거 시제를 나타냄을 확인할 수 있다.

A151

201903서울15

정답 ⑤

출제의도 문장의 구조를 이해한다.

정답해설 ㉔에서 ‘장애물 달리기’는 명사절이 아니기 때문에 목적어의 기능을 하는 안긴문장은 없다.

오답피하기

- ①, ② ㉔에서 ‘그 사람이 범인임’은 주어의 기능을 하는 명사절이고, ‘그’는 ‘사람’을 수식하는 관형어이다.
- ③ ㉔에서 ‘부상을 당한’은 ‘선수’를 수식하는 관형절이고, ‘부상을 당한’에서 주어는 생략되어 있다.
- ④ ㉔에서 ‘성적이 많이 오르기’는 목적어의 기능을 하는 안긴문장이고, ‘많이’는 ‘오르기’를 수식하는 부사어이다. ㉔의 안긴문장 속에는 부사어가 없다.

201904경기

A152 ④

A153 ①

A154 ②

A155 ④

A156 ①

A152

201904경기11

정답 ④

출제의도 이형태의 특징 이해하기

정답해설 ㉔과 ㉕은 손아랫사람을 부를 때 쓰는 호격 조사로 그 의미가 서로 동일하다. ㉔은 모음 뒤에만 쓰이고, ㉕은 자음 뒤에만 쓰이므로 ㉔과 ㉕은 서로 상보적 분포를 보이는 음운론적 이형태 관계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㉔과 ㉕은 형태론적 이형태 관계라고 할 수 없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A153

201904경기12

정답 ①

출제의도 중세 국어 부사격 조사의 이형태 이해하기

정답해설 ㉔의 앞말 모음이 ‘이’이므로 ㉔에는 ‘예’가, ㉕의 앞말 모음이 양성 모음이므로 ㉕에는 ‘애’가, ㉖의 앞말 모음이 음성 모음이므로 ㉖에는 ‘에’가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㉔~㉖는 모두 부사격 조사로, 앞말 모음의 성질에 따라 상보적 분포를 보이므로 음운론적 이형태의 관계라고 할 수 있다.

A154

201904경기13

정답 ②

출제의도 사동문과 피동문의 서술어 자릿수 파악하기

정답해설 ㉑의 ‘눅았다’는 주어를 필요로 하는 한 자리 서술어이고, ㉒의 ‘눅었다’는 사동사로 주어와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 두 자리 서술어이다. ㉓의 ‘보았다’는 주어와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 두 자리 서술어이고, ㉔의 ‘보였다’는 피동사로 주어를 필요로 하는 한 자리 서술어이다. 따라서 ㉒은 사동문이며, ㉔과 서술어 자릿수가 같다.

A155

201904경기14

정답 ④

출제의도 음운의 변동 이해하기

정답해설 ㉔ ‘같이[가치]’는 구개음화가, ㉕ ‘난로[날:로]’는 유음화가 일어난다. 이는 음운 교체에 해당하므로 음운의 수가 변화가 없다. 따라서 A에 해당한다. ㉑ ‘집안일[지반닐]’은 ‘ㄴ’ 첨가가 일어나므로 음운의 수가 늘어난다. 따라서 B에 해당한다. ㉓ ‘좋은[조:은]’은 ‘ㅎ’탈락이, ㉔ ‘옳은[옴:는]’은 자음군 단순화가 일어난다. 이는 음운 탈락에 해당하므로 음운의 수가 줄어들지만 새로운 음운은 없다. 따라서 C에 해당한다. ㉕ ‘않고[안코]’는 ‘ㅎ’과 ‘ㄱ’이 만나 새로운 음운인 ‘ㅋ’이 되는 음운 축약이 일어난다. 따라서 D에 해당한다.

A156

201904경기15

정답 ①

출제의도 사전 활용하기의 적절성 파악하기

정답해설 ①은 '-겠-' 뒤에 붙어 쓰여 의문을 나타내는 종결 어미로 사용되었다. 따라서 '-지3'에 해당하므로 적절하지 않다.

201905전북

A158 ⑤ A159 ② A160 ⑤ A161 ④ A157 ③

A158

201905전북12

정답 ⑤

출제의도 어미의 유형 파악

정답해설 '준비하기가'의 '-기'는 명사형 전성 어미이지만, '쉽지'의 '-지'는 전성 어미가 아닌 보조적 연결 어미이다.

오답피하기

- ① '떡어'의 '-어'는 연결 어미, '보았다'의 '-다'는 종결 어미이므로 모두 어말 어미에 속한다.
- ② '들었다'의 '-었-'은 과거 시제를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이다.
- ③ '아니로구나'의 '-로구나'는 화자가 새롭게 알게 된 사실에 주목함을 나타내는 종결 어미이다.
- ④ '듣고'의 '-고'는 본용언과 보조 용언을 연결시켜 주는 보조적 연결 어미이다.

A159

201905전북13

정답 ②

출제의도 중세 국어의 특징 파악

정답해설 '허다'는 어간이 'ㅈ, ㅊ, ㅌ, ㅍ'로 끝나는 단어이므로 음성 모음 뒤에 붙는 명사형 전성 어미 '-옴' 대신 'ㅁ'만 결합하게 된다. 따라서 '허옴'이 아닌 '허ㅁ'으로 나타났을 것이다.

오답피하기

- ① '발다'의 마지막 음절에는 양성 모음이 쓰였으므로, 명사형 전성 어미로 '-옴'이 쓰여 '바옴'으로 나타났을 것이다.
- ③ '쁘다'는 어간이 'ㅌ'로 끝나는 단어이므로 'ㅌ'가 탈락된 후 명사형 전성 어미 '-옴'이 쓰여 '뿌'으로 나타났을 것이다.
- ④ '쁘다'는 어간이 'ㅌ'로 끝나는 단어이므로 명사형 전성 어미 '-옴' 대신 'ㅁ'만 결합되어 '뿌'으로 나타났을 것이다.
- ⑤ '버히다'는 어간이 중성 모음 'ㅣ'로 끝나는 단어이므로 'ㅣ'와 '-옴' 또는 '-옴'이 축약된 형태로 쓰여 '버흠' 또는 '버흠'으로 나타났을 것이다.

A160

21905전북14

정답 ⑤

출제의도 음운 변동의 이해

정답해설 '있고[일코]'에서는 'ㅎ+ㄱ'이 [ㅋ]으로 축약되는 거센소

리되기가 일어났으며 '곱하다[고파다]', '점잖다[점잔타]'에서도 각각 'ㅂ+ㅎ'이 [포]으로, 'ㅎ+ㄷ'이 [ㅌ]으로 축약되는 거센소리되기가 일어났으므로 ⑤의 진술은 적절하다.

오답피하기

- ① ㉠과 '땀받이[땀바지]'는 구개음화에 해당하지만 '밝히다[발키다]'는 거센소리되기에 해당한다.
- ② ㉡과 '옹기다[옹기다]'는 자음군 단순화에 해당하지만 '닭은꼴[달근꼴]'은 연음이 될 뿐 음운의 변동이 일어나지 않는다.
- ③ ㉢과 '일컸다[일컸따]'는 된소리되기에 해당하지만 '꿈같이[꿈가치]'는 구개음화에 해당한다.
- ④ ㉣과 '속눈썹[송눈썹]'은 비음화에 해당하지만 '답안지[다받지]'는 연음이 될 뿐 음운의 변동이 일어나지 않는다.

A161

201905전북15

정답 ④

출제의도 국어사전 정보 완성하기

정답해설 '만큼'은 체언이나 조사의 바로 뒤에 붙어 해당 단어를 부사어로 만들어 주는 격 조사이다. 이는 '만큼[II]'의 예문에서 '만큼'이 붙은 어절이 부사어가 된 것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오답피하기

- ① '만큼'이 어미 '-은, -는, -을, -던' 뒤에 쓰이는 경우에는 의존 명사이다. 이는 예문 '노력한 만큼 대가를 얻다'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 ② '검사가 까다로운 만큼 철저히 준비해.'는 철저히 준비하라는 내용의 근거가 검사가 까다롭기 때문이므로 ㉠에 들어가기에 적절하다.
- ③ '조사'는 '체언'의 바로 뒤에 붙으므로 ㉡에는 '체언'이 들어가기에 적절하다. 이는 제시된 예문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 ⑤ '만치'는 '만큼'과 같은 의미를 지닌 말로 그 의미와 기능이 '만큼'과 거의 같다.

A157

201905전북11

정답 ③

출제의도 안은문장, 안긴문장의 이해

정답해설 ㉠의 안긴문장 '빛깔도 곱게'는 안은문장의 서술어 '피었다'를 수식하지만, ㉡의 안긴문장 '색종이로 만든'은 안은문장의 부사어가 아니라 목적어 '쟁반을'을 수식한다.

오답피하기

- ① ㉠의 '곱게'는 안긴문장의 주어 '빛깔도'의 서술어이고, '피었다'는 안은문장의 주어 '도라지꽃이'의 서술어이다.
- ② ㉡의 '쟁반을'은 안긴문장 '색종이로 만든'의 생략된 목적어이면서, 안은문장의 목적어이다.
- ④ ㉠의 '빛깔도'는 안긴문장 '빛깔도 곱게'의 주어이고, ㉡의 '정성이'는 안긴문장 '정성이 가득 담긴'의 주어이다.
- ⑤ ㉢의 '선물했다'는 부사어 '어머니께'를 필요로 하는 서술어이고, ㉣의 '받았다'는 부사어 '친구로부터'를 필요로 하는 서술어이다.

A162

201906평가원11

정답 ③

출제의도 어휘 개념의 변화 이해하기

정답해설 지금의 '돼지'를 의미하는 말은 '돌'이었고, '도야지'는 '돌의 새끼'를 의미하는 말이므로 지금의 '돼지'와 예전의 '도야지'는 다른 개념이다.

오답피하기

- ① 1문단에서 '예전'의 '도야지'에 해당하는 개념은 사람들의 인식 속에 남아 있으며 다만 고유어 단어가 없다고 하였다.
- ② '도야지'의 의미가 더 한정적이다.
- ④ 지금의 '어린 돼지'에 해당하는 어휘는 '도야지'였다.
- ⑤ 1문단에서 지금은 '도야지'의 개념을 나타내는 하나의 고유어 단어가 없다고 하였다.

A163

201906평가원12

정답 ①

출제의도 어휘 관련 개념 적용하기

정답해설 ㄱ은 두 번째, 세 번째 사위를 구별하여 가리키는 단어가 없는 어휘적 빈자리에 해당하며 구를 만들어 빈자리를 채우는 방식이 적용되었다.

오답피하기

- ㄴ. 꿩의 새끼를 가리키는 '꺼병이'라는 단어가 존재하므로 '어휘적 빈자리'에 해당하지 않는다.
- ㄷ. '금성'의 고유어로 '셋별'과 '개밥바라기'가 존재하므로 '어휘적 빈자리'에 해당하지 않는다.

A164

201906평가원13

정답 ②

출제의도 중세 국어의 의문문 이해하기

정답해설 ㉠이 들어갈 문장은 설명의문문이고 2인칭 주어가 아니므로 보조사 '고'가 사용되어야 한다. ㉡이 들어갈 문장은 주어가 '네'로 2인칭이므로 종결 어미 '-니다'가 사용되어야 한다. ㉢이 들어갈 문장은 주어가 '그딕(그대)'로 2인칭이므로 종결 어미 '-니다'가 사용되어야 한다.

A165

201906평가원14

정답 ④

출제의도 음운의 변동 이해하기

정답해설 ㉠에서는 ㄴ첨가, 음절의 끝소리 규칙(교체), 유음화(교체)가 일어났다. ㉡에서는 자음군 단순화(탈락), 음절의 끝소리 규칙(교체), 비음화(교체)가 일어났다. ㉢에서는 구개음화(교체)가 일어났다. ㉣에서는 음운 개수가 달라지는 음운 변동인 '첨가'가

일어났으나, ㉤에서는 '교체'만 일어났으므로 음운 개수의 변화가 없다.

오답피하기

- ① ㉠에서는 ㄴ첨가, 음절의 끝소리 규칙(교체), 유음화(교체)가 일어났으며, ㉡에서는 자음군 단순화(탈락), 음절의 끝소리 규칙(교체), 비음화(교체)가 일어났다.
- ② ㉠, ㉡에서는 인접한 자음과 조음 방법이 같아지는 음운 변동인 유음화와 비음화가 일어났다.
- ③ ㉠에 첨가된 음운은 ㄴ이고, ㉡에서 탈락한 음운은 ㄹ이다.
- ⑤ ㉠에서는 첫째 음절의 종성 ㄹ의 영향으로 둘째 음절의 초성 ㄴ이 ㄹ로 동화되었으며, ㉢에서는 둘째 음절의 종성 ㅌ이 모음 'ㅣ'를 만나 ㅌ으로 바뀌었으며 이는 자음의 조음 위치가 모음의 조음 위치에 동화되는 음운변동이다.

A166

201906평가원15

정답 ⑤

출제의도 사동과 피동, 단어의 의미 이해하기

정답해설 ⑤의 ㉠의 '쓸렸다'는 피동사가 사용된 피동문이고 <보기>의 '쓸다2'의 ①의 뜻이다. ㉡의 '쓸렸다'는 사동사가 사용된 사동문이고 <보기>의 '쓸다2'의 ①의 뜻이다.

오답피하기

- ① ㉠의 '갈렸다'는 피동사가 사용된 피동문이고 <보기>의 '갈다1' ②의 뜻이다. ㉡의 '갈렸다'는 사동사가 사용된 사동문이지만 <보기>의 '갈다1' ②의 뜻이 아니다.
- ② ㉠, ㉡의 '깎였다'는 모두 피동사가 사용된 피동문이고 <보기>의 '깎다'의 뜻이다.
- ③ ㉠, ㉡의 '물렸다'는 모두 사동사가 사용된 사동문이고 <보기>의 '물다1' ①의 뜻이다.
- ④ ㉠의 '물렸다'는 사동사가 사용된 사동문이지만 <보기>의 '물다2' ②의 뜻이 아니고 ㉡의 '물렸다'는 피동사가 사용된 피동문으로 <보기>의 '물다2' ②의 뜻이다.

201907사관학교

A167

201907사관학교11

정답 ④

A168

201907사관학교12

정답 ⑤

A169

201907사관학교13

정답 ③

A170

정답 ④

201907사관학교14

A180

정답 ②

201907경찰대9

A171

정답 ⑤

201907사관학교15

A181

정답 ③

201907경찰대10

201907경찰대

A172 ⑤ A173 ② A174 ① A175 ⑤ A176 ③

A177 ① A178 ④ A179 ④ A180 ② A181 ③

A182 ④ A183 ②

A182

정답 ④

201907경찰대11

A172

정답 ⑤

201907경찰대1

A183

정답 ②

201907경찰대12

A173

정답 ②

201907경찰대2

201907인천

A184 ④ A185 ① A188 ② A186 ④ A187 ④

A174

정답 ①

201907경찰대3

A184

정답 ④

201907인천11

출제의도 사동 표현의 특징 파악

정답해설 ㉠의 '선생님께서 ~ 읽히셨다.'는 접사에 의한 사동 표현이고 '선생님께서~ 읽게 하셨다.'는 '-게 하다'에 의한 사동 표현인데, 이는 모두 '선생님께서 철수에게 책을 읽도록 시키는' 간접 사동의 의미로만 해석된다.

오답피하기

① ㉠의 '낫춘다'는 '낫다'라는 형용사에 사동 접사 '-추-'가 결합된 사동사이다.

② ㉡은 주동문이 사동문으로 바뀔 때 서술어가 주어와 목적어를 요구하는 두 자리 서술어에서 주어와 목적어, 그리고 부사어를 요구하는 세 자리 서술어로 바뀌었다.

③ '이삿짐이 방으로 옮다'로 쓸 수 없으므로 ㉢의 경우 대응하는 주동문을 만들 수가 없다는 이해는 적절하다.

⑤ ㉤에서 자동사가 서술어로 사용된 주동문의 주어 '아기가'는 사동문에서 목적어로, 타동사가 서술어로 사용된 주동문의 주어 '철수가'는 사동문에서 부사어로 바뀌었다.

A175

정답 ⑤

201907경찰대4

A176

정답 ③

201907경찰대5

A177

정답 ①

201907경찰대6

A178

정답 ④

201907경찰대7

A185

정답 ①

201907인천12

출제의도 음운 변동의 이해

정답해설 '산란기[살:란기]'는 역행적 유음화가, '표현력[표현녁]'은 'ㄹ'의 비음화가 일어난다.

오답피하기

A179

정답 ④

201907경찰대8

- ② ‘줄넘기[줄림끼]’는 순행적 유음화가, ‘입원료[이뵤뇨]’는 ‘ㄹ’의 비음화가 일어난다.
- ③ ‘결단력[결탄녁]’과 ‘생산량[생산냥]’은 모두 ‘ㄹ’의 비음화가 일어난다.
- ④ ‘의견란[의:견난]’과 ‘향신료[향신뇨]’는 모두 ‘ㄹ’의 비음화가 일어난다.
- ⑤ ‘대관령[대:괵령]’은 역행적 유음화가, ‘물난리[물랄리]’는 역행적 유음화와 순행적 유음화가 모두 일어난다.

A188

201907인천15

정답 ②

출제의도 사전 활용의 적절성 파악

정답해설 ㉠은 수량을 나타내는 말 앞에 쓰여 ‘대략’의 뜻을 지닌 ‘한⁰¹4’이므로 관형사이고, ㉡은 조건의 뜻을 나타내는 ‘한⁰²2’이므로 명사이다.

오답피하기

- ① ‘한 이불’을 덮고 잔다는 것은 ‘같은 이불’을 덮고 잔다는 의미이므로 ㉠은 ‘한⁰¹3’이다.
- ③ ㉠은 ‘한⁰¹3’, ㉡은 ‘한⁰²1’로, ‘한⁰¹’과 ‘한⁰²’는 별개의 표제어로 기술되었으므로 동음이의 관계이다.
- ④ ㉡의 ‘한’은 뒤에 오는 체언 ‘걸음’에 수량의 의미를 더한 경우이므로 ‘한⁰¹1’에 해당한다.
- ⑤ ‘한 친구’와 ‘한 마을’의 ‘한’은 모두 ‘어떤’의 의미로 쓰였으므로 둘 다 ‘한⁰¹2’에 해당한다.

A186

201907인천13

정답 ④

출제의도 용언의 활용 방식 이해

정답해설 ㉠ ‘들르다’는 ‘들르-+ -어’가 ‘들러’로 나타나 ‘따르다’와 마찬가지로 활용할 때 어간에서 ‘ㄹ’이 탈락하는 규칙 활용이다. ㉡ ‘푸르다’는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와 결합할 때 어미 ‘-어’가 ‘-러’로 변화하는 불규칙 활용, ㉢ ‘묻다[問]’는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와 결합할 때 어간이 ‘물-’로 교체되는 불규칙 활용에 해당한다.

오답피하기

- ①, ② ‘잠그다’와 ‘다다르다’는 ‘잠가’와 ‘다다라’로 활용하므로 규칙 활용을 하는 용언이지만, ㉡과 ㉢이 적절하지 않다.
- ③, ⑤ ‘부르다’와 ‘머무르다’는 ‘불러’와 ‘머물러’로 활용하므로 불규칙 활용에 해당한다.

A187

201907인천14

정답 ④

출제의도 중세 국어와 현대 국어의 용언의 활용 이해

정답해설 ‘빙’은 ‘ㅍ’ 또는 ‘ㅍ’ 앞에서는 반모음 [w]로 변화하고, ‘ㄹ’과 결합하여서는 ‘ㄴ’로 바뀌었으므로 ‘즐거븐’은 현대 국어의 ‘즐거웁’으로 나타난 것이다.

오답피하기

- ① ‘지셔’는 ‘짓다’의 어간이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 ‘짓-’으로 교체된 활용형이다.

- ② ‘즐거븐’은 ‘즐겁다’의 어간이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 ‘즐거브’으로 교체된 활용형이다.
- ③ ‘△’이 소실되어 ‘지셔’는 현대 국어에서 ‘지어’로 나타난 것이다.
- ⑤ 중세 국어 ‘변ᄃᆞ야’와 현대 국어 ‘변하여’는 활용할 때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결합하여 어미의 기본 형태가 달라진 것에 해당한다.

201909평가원

A189 ① A190 ① A191 ② A192 ② A193 ①

A189~A190

201909평가원11~12

[11~12] 조사 ‘에’와 ‘에서’의 역사적 형성 과정

지문해설 이 글에서는 먼저 현대 국어의 조사 ‘에’와 ‘에서’의 의미 및 기능 차이를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보이고, 그러한 차이의 원인을 ‘에서’의 중세 국어 형태인 ‘에서’의 형성 과정에서 찾고 있다. 다음으로 중세 국어에서는 ‘에서’ 계열의 조사가 쓰일 자리에 ‘에’ 계열의 조사가 쓰이는 경우가 많았지만 현대 국어에서는 이 둘의 의미가 [지점]과 [공간]으로 분화되었음을 설명하고 있다. 끝으로 현대 국어의 ‘에서’가 주격 조사로 쓰이듯이 중세 국어에서도 ‘에서’ 계열의 조사가 주격 조사로 쓰였음을 설명하는 한편, 현대 국어의 주격 조사 ‘께서’는 부사격 조사 ‘께’에 ‘서’가 결합한 것으로서 중세 국어 형태인 부사격 조사 ‘씨셔’가 변화된 결과임을 제시하고 있다.

주제 ‘에’와 ‘에서’의 의미 및 기능 차이에 대한 통시적 분석

A189

201909평가원11

정답 ①

출제의도 중세 국어와 현대 국어의 비교

정답해설 중세 국어에서는 ‘애/에/예, 인/의’가 현대 국어의 ‘에’와 ‘에서’의 쓰임을 모두 지니고 있었다는 진술을 통해, 중세 국어에서 ‘에’ 앞의 명사가 공간의 의미를 나타낼 수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오답피하기

- ② (1)에서 ‘에’ 앞에 붙은 ‘서울’이 ‘에서’ 앞에 붙을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같은 명사라도 [지점]으로 인식되느냐, [공간]으로 인식되느냐에 따라 ‘에’와 ‘에서’가 달리 쓰인다.
- ③ 중세 국어에서 ‘에서/에서/에서, 인서/의서’가 주격조사로도 쓰인 경우가 있다는 진술을 통해 사실이 아님을 알 수 있다.
- ④ ‘이시다’의 활용형인 ‘이셔’가 ‘에’에 결합되면서 ‘에서’로 나타나는데, ‘이셔’의 의미상 어떤 공간 속에 있음을 전제한다는 진술을 통해 ‘셔’가 지점의 의미를 나타낸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 ⑤ 지문의 마지막 문단을 통해 중세 국어 ‘에서’는 현대 국어 ‘에서’와 마찬가지로 유정 명사 뒤에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A190

201909평가원12

정답 ①

출제의도 중세 국어와 현대 국어의 비교

정답해설 '그 지역에서'는 부사어로, '에서'는 주격 조사가 아닌 부사격 조사이다.

오답피하기

- ② '정부에서'는 집단을 의미하는 주어로, '에서'는 주격 조사이다.
- ③ '할머니께서'는 주어이므로 '께서'는 주격 조사이다. 현대 국어의 '께서'는 높임의 유정 명사 뒤에 나타난다.
- ④ 현대어 풀이 중 '관청에서'가 주어로 쓰였음을 볼 때 '그 위에서' 역시 주어이며 이때의 '에서'는 주격 조사임을 알 수 있다.
- ⑤ 현대어 풀이가 '부처님으로부터'이므로 '부터께서'는 부사어이고, '께서'는 부사격 조사임을 알 수 있다. 중세 국어에서는 부사격 조사 '께서'가 쓰였음을 지문의 마지막 문단에서 확인할 수 있다.

A191

201909평가원13

정답 ②

출제의도 음운 변동 이해, 적용

정답해설 하나의 자음으로 끝나는 말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가 결합할 때는 받침을 그대로 옮겨 뒤 음절 초성으로 발음해야 하는데, 이를 연음이라고 한다. 이에 따르면, '안팎을'을 [안파글]로 부정확하게 발음하는 것은 음절의 끝소리 규칙을 적용하여 'ㄱ'을 'ㄱ'으로 바꾼 뒤에 연음하였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오답피하기

- ① 겹받침을 가진 말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가 결합할 때는 겹받침의 앞 자음은 음절의 종성에서 발음되고 겹받침의 뒤 자음은 다음 음절 초성으로 이동하여 발음된다. '찰흙이'는 자음군 단순화를 적용하지 않고 겹받침의 뒤 자음만 다음 음절 초성으로 이동하여 [찰홀기]로 발음해야 한다. [찰홀기]로 부정확하게 발음하는 것은 자음군 단순화를 먼저 적용하고 연음한 결과로 볼 수 있다.
- ③ '넋이'는 자음군 단순화를 적용하지 않고 겹받침의 뒤 자음만 다음 음절 초성으로 이동하여 [넋씨]로 발음해야 한다. 이때, '시'가 아닌 '씨'로 발음되는 것은 '넋'의 'ㄱ'에 의한 된소리되기의 영향이다. [넋기]로 부정확하게 발음하는 것은 자음군 단순화를 먼저 적용하고 연음한 결과로 볼 수 있다.
- ④ '끝을'은 연음하여 [끄틀]로 발음해야 한다. 구개음화는 'ㅣ'나 반모음 'y'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와 결합할 때 발생하는 음운 현상이기 때문에 '끝을'과는 무관하다.
- ⑤ '숲에'는 연음하여 [수페]로 발음해야 한다. 이때 '숲에'를 [수베]로 부정확하게 발음하는 것은 음절의 끝소리 규칙을 적용한 뒤에 연음하였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거센소리되기는 예사소리 'ㄱ', 'ㄷ', 'ㅂ', 'ㅈ'이 'ㅎ'을 만나 각각 거센소리 'ㅋ', 'ㅌ', 'ㅍ', 'ㅊ'로 발음되는 현상이기 때문에 '숲에'와는 무관하다.

A192

201909평가원14

정답 ②

출제의도 단어의 구조 파악

정답해설 '떠넘기면'의 어간은 '떠넘기-'이다. '떠넘기-'는 직접

구성 요소가 어근 '뜨-'와 어근 '넘기-'로 분석되기 때문에 ㉠을 충족한다. 또한, '넘기-'는 다시 어근 '넘-'과 접사 '-기-'로 분석되기 때문에 '떠넘기-'는 3개의 구성 요소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도 충족한다.

오답피하기

- ① '내리쳤다'의 어간은 '내리치-'이다. '내리치-'는 어근 '내리-'와 어근 '치-'로 분석되기 때문에 ㉠을 충족한다. 그러나 '내리치-'는 2개의 구성 요소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을 충족하지 못한다.
- ③ '헛돌았다'의 어간은 '헛돌-'이다. '헛돌-'은 접사 '헛-'과 어근 '돌-'로 분석되기 때문에 ㉠을 충족하지 못한다. 또한, 2개의 구성요소로 이루어져 있어서 ㉡ 또한 충족하지 못한다.
- ④ '오간다'의 어간은 '오가-'이다. '오가-'는 어근 '오-'와 어근 '가-'로 분석되기 때문에 ㉠은 충족하지만 2개의 구성요소로 이루어져 있어서 ㉡을 충족하지 못한다.
- ⑤ '짓밟혀도'의 어간은 '짓밟히-'이다. '짓밟히-'는 직접 구성 요소가 접사 '짓-'과 어근 '밟히-'로 분석되기 때문에 ㉠을 충족하지 못한다. '밟히-'는 다시 어근 '밟-'과 접사 '-히-'로 분석되기 때문에 '짓밟히-'는 3개의 구성 요소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은 충족한다.

A193

201909평가원15

정답 ①

출제의도 문장의 짜임새 파악

정답해설 제시된 겹문장은 '날씨가 춥다'가 관형절로 안겨 '날씨'를 꾸며주므로 '명사절을 안은 문장'이라는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다. 이때 안긴절의 주어 '날씨가'는 생략된다.

오답피하기

- ② 제시된 겹문장은 '동생은 얼음을 먹었다'가 관형절로 안겨 '동생'을 꾸며주므로 조건을 만족한다.
- ③ 제시된 겹문장은 '동생은 추위와 상관없다'가 부사절로 안겨 '먹었다'를 꾸며주므로 조건을 만족한다.
- ④ 제시된 겹문장은 '날씨가 춥다'가 간접 인용절로 안겨 있으므로 조건을 만족한다.
- ⑤ 제시된 겹문장은 '형은 물을 마셨다'와 '동생은 얼음을 먹었다'가 연결 어미 '-지만'을 통해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이므로 조건을 만족한다.